

7

July 2023
Vol.379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Bizet
Carmen

Puccini
Madame Butterfly
& Turandot

Verdi
La Traviata

OPERA & ART LECTURE CONCERT

COLUMN
한여름 매우축제

COVER STORY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클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대동대학교 D'ART홀





2023 SUMMER FANTASY

2023. 7. 20.(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임희준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하모니스트 박기국

Mamma Mia, Let it be, Libertango, Piano man,
On Earth As It Is In Heaven from 'The Mission', Se from 'Cinema Paradiso' 등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 www.bscc.or.kr
티켓 : 전석 10,000원 문의 : 607-6000(ARS1번)



예술감독



지휘 이동훈

신 念 願

취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新, 念願

연주회



노래 장사익



색소폰 이정식



가야금 김일연



거문고 오상훈

Program

국악관현악을 위한 뱃노래
거문고 협주곡 숲
재즈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메나리토리 / Autumn Leaves
25현 가야금 협주곡 가야송
장사익 짚레꽃 / 꽃구경 / 봄날은 간다

사회 손자현

2023. 7. 2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601

Shostakovich and Prokofiev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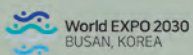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지휘 서진
바이올린 김재원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7번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오디션을 거친 신인연주자와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성악가가 선사하는 유쾌한 드라마

G. Rossini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지휘 백승현



연출·해설 이익주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백승현

연출 및 해설 이익주

무대구성 이익주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무대감독 박재현

음악코치 도민영

영상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은빈

피가로 안세범, 유용준

알마비바 김동녘, 강도호

로지나 권소라, 박나래, 김소연, 김리라

바질리오 이준석

바르톨로 박순기, 황동남

요정 한세빈

무대제작 남기혁

조연출 전하라, 박서경

2023. 7. 6. (목) 14:00, 19:30

7. 7. (금) 10:30, 1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20,000원(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051)607-3110, 3113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사전예약공연</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 관람시간 : 6월 9일(금)-7월 23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평일 단체공연 •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입장)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에릭 요한슨展 6월 27일(화)-10월 8일(일)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입장 마감 오후 6:00) • 입 장 료 : 일반 (만 19세 이상) 1만8천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2천원 • 문 의 : Hteam 070-7008-8905</p>	
<p>2</p> <p>우리의 네번째 여름 in 부산 '20세기 핑수' 17:00 대 11만8천원·8만8천원 (주)공연이야기(010-3616-8984)</p>	<p>3</p>	<p>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19:30 대 16만원·12만원·8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연주회 '하모니 피아노 콰르텟' 19:30 렘 초대/예술기획(010-4909-7444)</p>	<p>5</p> <p>◆ 부산시립합창단 예술 '교실 밖 합창여행' 19:30 중 전석 1만원(단체관람 부산시립예술단(607-6000)</p>
<p>9</p> <p>예림회 피아노 듀오 시리즈 XII 15:00 중 3만원·2만원·1만원 클라시코예술기획(02-775-8600)</p>	<p>10</p>	<p>11</p>	<p>12</p> <p>부산예술고등학교 2023 대 부산예술고등학교(500-100)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16:00 중 부산MBC(760-1120)</p>
<p>16</p>	<p>17</p>	<p>18</p>	<p>19</p>
<p>23</p>	<p>24</p>	<p>25</p>	<p>26</p>
<p>30</p> <p>지브리 페스티벌 17:00 대 7만5천원·5만5천원·4만5천원 (주)스튜디오뮤직(02-2658-3546)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31</p>	<p>더 부산 혼 사운드 제6회 정기연주회 '문화예술 도시 부산의 울림_운명' 19:30 중 전석 1만원 더 부산 혼 사운드(010-8733-7438)</p>	<p>2023년 국제콩쿨 입상자 중 3만원·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00)</p>



ED	THU	FRI	SAT
 <p>에릭요한센展 2023. 6. 27. ~ 10. 8. 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1</p> <p>우리의 네번째 여름 in 부산 '20세기 펑수' 17:00 대 11만8천원-8만8천원 (주)공연이야기(010-3616-8984) ◆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유홍준'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교육공연 10:30 (주)부산문화회관(607-3110, 3113)</p>	<p>6</p> <p>◆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4:00,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0, 3113) ◆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14:00 중 전석 1만원(단체관람)/부산시립예술단(607-3113) 소프라노 오예은 독창회 19:30 첼 뮤직클레프(02-3297-3387)</p>	<p>7</p> <p>◆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0:30, 14: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0, 3113) ◆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 14:00 중 전석 1만원(단체관람)/부산시립예술단(607-3113) 2023 KNN방송교향악단 실내악 페스티벌 19:30 첼 KNN방송교향악단(850-9568)</p>	<p>8</p> <p>정서미(정송이) 피아노 독주회 17:00 첼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p> <p>무용정기공연 19:00 (주)부산문화회관(607-3110, 3113) 시상식 및 수상자 연주회</p>	<p>1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카르멘' 19:3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첼리스트 김규식의 전국투어 리사이틀 19:30 첼 7만원-5만원-3만원/부산문화(1600-1803)</p>	<p>14</p> <p>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해설 힐링합창제' 19:30 대 아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 음악극 '부산을 노래하다' 19:30 중 전석 1만원/작곡동인 SEUM(010-7600-4514)</p>	<p>15</p> <p>노엘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 17:00 대 (사)송인문화재단(010-4183-2293)</p> <p>서혜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18:00 첼 서혜정(010-2337-4291)</p>
<p>9</p>	<p>20</p>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1</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2</p> <p>목포시립교향악단 초청 영·호남 교류 음악회 15:00 대 YJ클래식스(010-6307-6885)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The Solist' 16:00, 19:30 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6</p> <p>김설화 독주회 19:30 (주)부산문화회관(1600-1803)</p>	<p>27</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0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이종훈 취임연주회 '新,念願(염원)'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8</p> <p>경희댄스시어터 '우물가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19:30 중 전석 2만원/경희댄스시어터(010-3577-3092) 트리오 빨리노 창단연주회 19:30 첼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9</p> <p>2023년 브니엘 무용 발표회 19:00 대 브니엘예술고등학교(513-7612) 경희댄스시어터 '우물가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17:00 중 전석 2만원/경희댄스시어터(010-3577-3092)</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전시실</p> <p>부산해석회 회원전 6월 27(화)-7월 2일(일) 전시실1·2</p> <p>부산초대사진가회 7월 4일(화)-7월 7일(금) 전시실1·2</p> <p>공존의 숲 7월 11일(화)-7월 16일(일) 전시실1</p> <p>ART_Contact Metaverse 7월 22일(토)-7월 30일(일) 전시실1</p> <p>•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12</p>		
2	3	4	5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9	10	11	12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1:0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풍류동인 답소 열두번째 댕 '동백섬 인어 황옥공주' 16:00 소 풍류동인 답소(010-6388-763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6	17	18	19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1:0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3	24	25	26
30	31		<p>뮤지컬 '데스노트' 14: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p>
<p>뮤지컬 '데스노트' 19:0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p> <p>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11:00, 15:00 소 오오씨어터(622-5550)</p>			<p>뮤지컬 '데스노트' 14: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p>

ED	THU	FRI	SAT
			<p>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부산 버스킹 페스타' 15: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기획연 스!' 10:20 (48개월 이상 관람) 07-6000)</p>	<p>6</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0:3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7</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12인의 성난사람들' 19:30 소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8</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1:00, 14:0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12인의 성난사람들' 15:00 소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기획연 스!' 14:00 (48개월 이상 관람) 07-6000)</p>	<p>1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0:3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5</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1:00, 14:00 대 7만원·5만원·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청년연출가 작품지원 쇼케이스 13:00 소 부산문화재단(316-7632)</p>
<p>9</p>	<p>20</p>	<p>21</p>	<p>22</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검정고무신' 15:00 소 전석 2만원(8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6</p> <p>0, 19:30 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9621)</p>	<p>27</p> <p>뮤지컬 '데스노트' 19: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p>	<p>28</p> <p>뮤지컬 '데스노트' 19: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p>	<p>29</p> <p>뮤지컬 '데스노트' 19:0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14세 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11:00, 15:00 소 오오씨어터(622-555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가혹한 운명
진실한 사랑을 통한 구원

MUSICAL
F A R I N E L L I
파리넬리

9.23(토)~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에이치제이컬처 HICULTURE 주최·주관 WSM 부산문화회관 시간 토/일 오후 2시, 6시 예매 인터파크, 네이버예약, 11번가티켓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4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7

월간문화예술정보지



24



30



38

- 10 **Column**
한여름 매우축제
- 12 **Cover Story**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 16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 이동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6대 수석지휘자 천경필
- 20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②**
AI는 경쟁자일까? 도구일까?
- 24 **세계의 콘서트홀 ③**
리더할레(Liederhalle), 슈투트가르트
- 28 **서울통신원**
정구호 스타일 한국무용의 명암
- 30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D`ART HALL
- 33 **Preview**
- 38 **전시화제**
- 40 **Review**
- 42 **Program Guide**
- 53 **New Book**
- 54 **BSCC News**

예술의 초대 July 2023 Vol.379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6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위원 등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장 정복엽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한여름 매우축제

동길산 시인·본지 편집위원장, dgs1116@hanmail.net



비가 잦다. 유월 첫날부터 오더니 잇을 만하면 온다. 이렇게 오다가 장마로 이어지는가 보다. 장마철은 고역이다. 방이 쿡쿡해서 여름인데도 보일러 돌리기 일쑤고 밖은 후텁지근해서 땀내, 쉰내 범벅이다. 오래오래 가물다가 연일 내리는 비가 아닌 이상 장맛비가 반가울 사람은 그다지 없지 싶다.

식물이라고 다를 바 없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내려야 식물도 반가워하지 연일 내리는 비는 한여름 밭상이다. 비 맞은 감나무 이파리가 축 처지는 것이 어찌 제 무게 때문만일까. 연일 비 맞아 속병 도진 풋감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산골집 마당. 떨어진 풋감이 어느 정도 되면 마당에 나선다. 나무 아래 여거지기 널브러진 풋감을 마당 한쪽에 모은다.

매실은 속도 없다. 풋감은 속절없이 떨어지건만 저는 신수가 흰하다. 매실에 맺힌 빗방울도 매실을 닳아 탕글탱글하다. 그러나 매실인들 풋감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을까. 풋감 떨어지는 소리에 꿈쩍꿈쩍 놀라지 않을까. 그 좋던 꽃 죄다 떨어진 매화와 파릇한 풋감 떨어는 감나무. 꽃 떨어진 빈자리와 풋감 떨어진 빈자리가 어찌 다르며 낙화의 슬픔과 낙과의 슬픔이 무어 다르랴.

꽃이 무거워서
꽃을 떨구었는데
꽃보다 무거워지는
꽃의 자리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
떨어지기 전보다 무거워지는
사람의 자리

- 동길산 시 '매실'

림(霖)은 보는 순간 그림이 그려지는 한자다. 비가 숲속 뽕뽕한 나무처럼 퍼붓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했다. 무슨 뜻일까. 감이 빠른 분은 이미 '순간 포착'했겠다. 그렇다. 장마란 뜻이다. 옛사람은 장마를 계절별로 다르게 불렀다. 봄장마를 춘림, 가을장마를 추림이라고 했다. 겨울 장마는 드물다고 보고 별도로 부르지 않았다. 장마조차 다르게 불렀던 데서 자연을 극진히 여겼던 착한 마음이 엿보인다.



여름 장마는 한자로 뭘까. 감이 빠른 분은 하림이라고 하겠지만 이번엔 빗나갔다. 매실 매를 써서 매림(梅霖)이라고 했다. 매실은 여름에 영근다. 매실 영그는 철에 내린다고 해서 “매림, 매림” 그랬다. 돌담길, 황톳길 구불구불하던 시절에 매화는 상비약이었다. 집집이 아니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매화를 심고서 매실을 약용으로 썼다. 장마철이면 집집이 아니면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매실이 영글었다.

비가 가늘다. 본격 장마철은 아직 아니어서 오다가 말고 오다가 말고 그런다. 장마가 아닌 비도 옛사람은 계절마다 달리 평했다. 예컨대 봄비는 뒤에 좋고 여름비는 뒤에 좋다는 식이다. 그것 잘한 사람이 중국 사람 장조(張潮, 1650~?)였다.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들어서던 격변기 지식인이었다. 머리에 먹물은 꼭 찻어도 하는 일마다 꼬였다. 감옥에도 갔다. 죽림에 은둔하는 바람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스테디셀러인 주옥같은 저서를 남겼기에 이름은 전한다.

춘우의독서, 하우의혁기, 春雨宜讀書, 夏雨宜奕棋,
추우의검장, 동의의음주 秋雨宜檢藏, 冬雨宜飲酒

유몽영. 주옥같은 저서 제목이다. 한자는 幽夢影. 희미한 꿈의 그림자, 그쯤 된다. 그 책에 사계절 비를 평한 글이 실렸다. 봄비는 독서에 좋고 여름비는 바둑 두기에 좋고 가을비는 서랍 정리, 겨울비는 술 마시기에 좋단다. 오죽 심심했으면,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았으면 비에 빠져서 저런 명상을 했을까. 안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심심, 그런 빈 시간이 그렇고 그런 비를 생경하게 하고 생동하게 했다. 세상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며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지금은 매우(梅雨)의 계절. 그리고 매림(梅霖)의 한 철. 여름은 다혈질이고 걱정적이라서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갈 매우의 계절, 매림의 한 철을 곱곹한 방에서 곱곹하게 지내서야 쓰겠는가. 매실 향긋한 향기 같은 분위기, 매실에 맺혔다가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 향긋한 소리 같은 화음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 한여름 밤의 축제나 공연처럼 비 내리는 통유리 창가에서 한여름 매우축제나 매림공연! 이름부터 그럴싸하지 않은가.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일시 7월 13일(목), 8월 31일(목), 10월 19일(목)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OPERA & ART LECTURE CONCERT



이주현



손지현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가 7월 13일 '카르멘'을 시작으로 올 한해 세차례 펼쳐진다.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시리즈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는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현이 해설하고 아나운서 손지현이 진행하는, 오페라와 그림, 그리고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로, 종합무대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를 그림과 함께 친절한 해설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이번 시리즈를 통해 감정을 공감하고, 나를 표현하며, 끝없는 상상이 가능한 두 예술장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으며, 예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통찰하고, 시대를 이해하는 지적이고 인문학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준다.

이번 무대에서 관객들을 미술관으로 안내할 이주현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 미술 잡지 편집장을 거쳐 학교재 갤러리와 서울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주현은 미술평론가이자 미술 이야기꾼으로 활동하며 미술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좀 더 쉽고 폭넓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 그가 출간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화의 미술관'(전2권), '지식의 미술관', '역사의 미술관', '리더의 명화 수업', '10대를 위한 이주현의 창조적 미술관',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1·2', '신화, 그림으로 읽기', '현대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 등이 있으며, 한국교육방송(EBS)에서 '이주현의 미술기행', '청소년 미술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페라 해설가로 무대에 서는 아나운서 손지현은 부산MBC 공채 아나운서로 클래식FM 가정음악실, TV프로그램 부산부산문화 등을 진행했으며, 부산MBC 창사 60주년 기념 부산사랑음악회를 비롯해 부산클래식음악제, 제야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 꽃 오페라 카르멘 *Carmen*

새빨간 오페라 커튼을 연상시키는 작품이자, 강렬한 레드로 상징되는 정열의 주인공 '카르멘'.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카르멘'은 사랑과 자유를 추구하는 집시여인 카르멘과 그녀를 사랑하는 병사 호세의 집착을 통해 사랑과 운명의 대립을 비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매력적인 멜로디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열정적인 아리아와 춤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김예원, 테너 허동권, 바리톤 강경원, 피아니스트 이소영이 출연,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에 이어 '하바네라',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당신이 던져 준 이 꽃은', '축배를 들시다' 등 주요 아리아



를 들려준다. 박현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바이마르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제15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클래식 타임즈상을 수상했다. 김예원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오페라 ‘알치나’로 데뷔했으며, 현재 독일 데트몰드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중이다. 허동권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페로씨 국립음악원, 안코나 시립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서울시 오페라단 주역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으로 다수 무대에 서고 있다. 강경원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BS마린캄머오페르 대표,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울산동구 늘푸른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소영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밀라노 시립음악원, 마자떼 도니제티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경남오페라단 음악감독, 아토오페라 앙상블 예술감독, 부산반주연구회 회장으로 있다.

그림을 통해 보는 카르멘의 유혹과 열정

오페라 ‘카르멘’이 워낙 유명하나 이를 소재로 한 그림들은 정작 많지는 않다. 화가들은 자기만의 느낌을 토대로 주제를 압축해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주역인 카르멘에 집중해 상상으로 그 캐릭터를 창조하거나, 아님 오페라 가수의 초상화를 그릴 때 카르멘으로 형상화하여 모델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런 그림들은 카르멘에 대한 화가들의 시각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에 흥미로운 감상 대상이 된다. 밸런타인 프린셉의 ‘카르멘’이나 에두아르 마네의 ‘에밀리 앙브르의 초상’, 프리드리히 폰 가울바흐의 ‘카르멘으로 분장한 로자리오 게레로’ 같은 작품이 그런 그림이다. 직접적으로 카르멘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 댄스, 특히 플라멩코를 추는 매력적인 여성을 그린 그림들은 자연스레 카르멘을 떠올리게 한다. 존 싱어 사전트의 ‘엘 할레오’, 윌리엄 메릿 체이스의 ‘카르멘치타’ 같은 그림을 보노라면 카르멘이 추던 춤 속으로 빨려드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오페라 ‘카르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함께 보면 좋을 그림들도 소개한다. 카르멘은 오페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팜 파탈’로, 팜 파탈은 프랑스어로 ‘치명적인 여자’를 뜻한다. 미술에서 팜 파탈은 주로 신화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릴리트, 살로메, 키르케, 데릴라 등으로 이들을 그린 그림들을 집중적으로 감상해 본다. 영국 화가 단테이 로세티의 ‘릴리트’를 비롯해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모로의 ‘살로메’, 그리고 키르케를 주제로 한 영국 화가 윌리엄 워터하우스, 독일 화가 프란츠 폰 슈투크의 작품과 데릴라의 유혹에 속아 머리카락이 잘리는 삼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의 그림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카르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미지인 투우와 투우사를 그린 피카소, 마네,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도 함께 감상한다.

기다림과 불멸의 또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Madame Butterfly & Turandot*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는 '카르멘'을 시작으로 8월 31일, '기다림과 불멸의 또다른 이름, 사랑'을 담은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그리고 10월 19일 마지막 작품으로 사랑과 이별, 죽음을 그리는 '동백꽃 질 무렵'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무대에 오른다.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돌아오지 않을 미국 해군장교 핑커튼 중위를 홀로 기다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초초상의 이야기를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이고 극적인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푸치니 최후의 역작인 오페라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 베이징의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세 가지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로, 극적인 음악과 화려한 연출로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의 주요 아리아인 '어느 개인날', '잘 있오라, 행복했던 집이여', '이 궁정 안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들려주며, 모네의 '기모노를 입은 카미유', 반 고흐의 '게이샤' 등 19세기 자포니즘(Japonism)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들과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등 서양인들이 바라본 오리엔트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한다.



동백꽃 질 무렵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베르디의 오페라 중 세계에서 가장 무대에 많이 올려지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공연된 오페라이기도 하다. '라 트라비아타'는 '버림 받은 여자'라는 뜻으로, 당시 파리의 고급 매춘부(코티잔)였던 마리 뒤플레시스를 모델로 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젊은 부르주아 청년 알프레도를 사랑한 화류계 여성 비올레타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축배의 노래', '아, 그이인가', '나의 불타오르는 마음을', '파리를 떠나서... 영원한 이별이여' 등 유명 아리아들이 많다. 이번 무대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코티잔을 그린 부세의 '블로드 오달리스트', 조지 롬니의 '엠마 해밀턴', 이스라엘의 '마타 하리' 등 코티잔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뜨거운 사랑의 이미지를 담은 프란체스코 아예츠의 '일 바초(키스)' 등 사랑의 전개과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경계 없는 레퍼토리를 멋진 연주로 담아내겠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 이동훈

권은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오랜 기다림 끝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로운 향해를 함께할 지휘자를 만났다. 새로운 만남은 늘 설레임과 기대로 다가온다. 그 신선한 기대감은 결국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 맺음으로 인한 또 다른 나의 발견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새로운 수장은 과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어떤 또 다른 면모와 역량을 드러내 보여줄 것인가?

여름의 맹렬한 향연이 시작되는 6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이동훈, 그를 만났다.

산과 계곡,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경기도 포천에서 자란 그에게서는 경토리의 느긋하고 낙천적인 기운이 배어있는 듯 했다. 그의 음악과의宿命적인 인연은 이렇

듯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포천의 들녘에서 들려오던 경토리의 민요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상에서 듣던 동네 어르신들의 일노래, 구당에서 들려오던 경기 시나위가락은 자연스레 이동훈의 몸에 스며들었고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서양음악 작곡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간 그가 다시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국악작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보로 보여진다.

그의 음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평생의 스승 이준호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상규, 박일훈과 같은 당대 국악 작곡계의 쟁쟁한 스승들로부터 작곡을 사사받은 이동훈 지휘자는 다시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국악교육정책을, 단국대학교에서 지휘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것으로 배움의 행보를 이어갔고, 이후 경기도립국악단에서 11년을 근무하면서 음악현장 경험을 통해 다방면의 역량을 갖추어 나갔다. 이후 이어지는 본격적인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그가 지나온 행보는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 ASIA 전통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영동군단체국악단 상임지휘자,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한국의 우수한 국악 관현악단을 지휘하는 경력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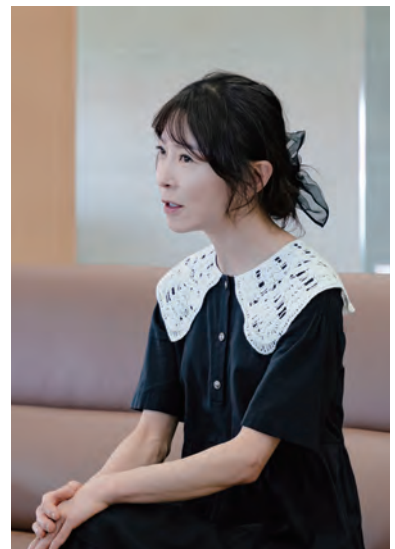
이동훈 지휘자와 함께 국악관현악의 강점과 약점, 대중성과 예술성, 전통음악과 오늘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지휘자로서 그의 음악적 지향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음악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저는 음악에 대해 특별히 경계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가 있다면 완성도 있는 좋은 연주와 그렇지 못한 연주가 있다고 봅니다. 경계 없는 레퍼토리들을 멋진 연주로 담아낸다면 모두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예술, 음악이 줄 수 있는 감동도 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딜레마를 좋은 연주로 풀어내겠다는 그의 굳건하지 않은 소박한 포부에 느긋한 낙천성이 배어 나온다.

202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40주년을 맞는다. 내년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어떤 향해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동훈 지휘자는 다소 조심스럽게 두 장의 공연 계획안을 내민다. 살펴보니 내년의 전체 연주계획을 묶는 두 개의 핵심 코드가 보인다. '전통'과 '젊음'이다. 상반되지만 서로를 비추는 주제들이며 모두 놓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인터뷰 글을 읽으시는 독자께서는 내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기획한 모든 연주를 한껏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네팔에는 불의 울림을 이용해 몸을 치유하는 싱잉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노그릇처럼 생긴 악기가 있다. 싱잉볼은 소리를 내는 용도와 더불어 음식을 담아 두기도 하는데 싱잉볼에 담아둔 음식은 그 신선도와 영양소가 배가 되면서 맛도 좋게 변화한다고 한다. 이처럼 이동훈 지휘자가 담아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음악이 모두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가는 예술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음악을 대하는 진심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6대 수석지휘자 천경필

정두환 문화유목집단동행 예술감독, 본지 편집위원

맑고 밝은 목소리로 듣는 이로 하여금 동심의 세계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음악. 이러한 음악은 아이들의 순수함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아름답고 순수한 동요를 비롯하여 아이들이 노래하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한 위로를 주는 단체, 이러한 단체가 소년소녀합창단일 것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73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다. 부산에서는 1973년, 부산시민회관 개관을 시점으로 공연문화가 정착 및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각각 흩어져 있던 시립예술단체는 부산시민회관 개관과 더불어 부산시립예술

단이라는 간판과 전문 연습실 및 공식 사무실 등이 갖추어졌다. 같은 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범하였으니 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의 공연문화와 더불어 그 맥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난 50년의 시간속에 천경필 6대 수석지휘자를 맞이하였다. 필자는 눈 부시게 햇살 좋은 날 부산문화회관에서 천경필 지휘자를 만났다.

정두환(이하 정) 먼저 축하드립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의 제6대 수석지휘자를 맡게 되셨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천경필(이하 천) 감사합니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있는 단체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부담감이 많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 합창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였던 것들을 합창단에 잘 녹여내어 우리나라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지휘자님은 어떻게 음악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천 저의 누님이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음



악교육과 1기신데 어렸을 때부터 누님의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LP판, 악보, 음악관련 책 등을 보고, 듣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음악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래하는 것은 무척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고요.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탈리아 유학 때 성악과 지휘를 전공하였습니다.

천경필 수석지휘자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성악전공)를 졸업한 뒤 이탈리아로 유학길에 올라 쿠네오국립음악원과 밀라노 'G. Donizetti' 아카데미 합창지휘과, 로마 'A. I. ART' 아카데미, VARESE 최고 합창지휘자 코스를 졸업하였다. 이후 유럽에서 활동하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에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재직하였다.

정 어린이 합창단부터 성인 합창단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합창단을 지휘하셨는데 어떤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라고 생각합니까?

천 제 생각에 좋은 지휘자란 타고나는 지휘자와 만들어지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음악을 대하는 마음이 사심(私心)없는 진심(眞心)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 사심 없는 진심이라... 어떻게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천 평소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여기에 열정을 쏟아부으면 청중들도 진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주자가 감동받지 않으면 청중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악에는 순수함과 밝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잘 정돈된 규칙과 자연스러운 소리를 추구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노력과 진심은 무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정 합창단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천 저는 우리 합창단이 호흡에 실린 자연스러운 소리를 더욱 밝고 맑게 내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창단은 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소리의 결과 비슷하구요. 이러한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원들은 아름다운 심성이 있어

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합창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구요, 이러한 효과는 단원들로 하여금 음악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원들에게 평생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정 지휘자님이 추구하는 음악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천 제가 20대 때 생각한 음악을 하는 목적은 모든 인류의 영혼을 음악을 통해서 맑게 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 합창단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음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합창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소년소녀들의 합창은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영혼을 간직하게 합니다.

정 이제 대전에서 부산으로 음악 영역을 옮겼는데 부산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천 음악을 사랑하고 합창단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시민 여러분이 성장하며 잊혀졌던 순수함과 재기발랄함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평소 힘든 사회 활동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맑은 영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저희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휘자는 경험치가 쌓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5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음악은 절정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휘자는 청중들에게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퍼포먼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진정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음악을 청중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을 때 청중은 감동합니다.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겸손함과 자신감을 갖춘 천경필 수석지휘자. 그는 단원들을 존중하며, 좋은 음악을 만드는 동반자로 생각한다. 이제 그 자신감과 겸손함이 음악에 실현되는 과정을 우리 또한 겸손하게 지켜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가 됐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새로운 50년을 기대한다.

AI는 경쟁자일까? 도구일까?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4차 산업혁명, 딥러닝 인공지능, 원격회의 프로그램, 가상화폐, 메타버스, OTT 등, 최근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문화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 관련한 기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되었고 점차 실현되어오고 있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는 몰라서는 안 되는 생활 속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이야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이 지배될 거라는 암울한 예견을 하기도 한다. 미래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술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미지 생성형 AI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 논란이 되었다. 이 작품은 제임스 앨런(Jason Allen)이 제작한 <우주의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¹이다. 제목처럼 우주적인 공간 속에서 고전적이고 화려한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는 듯한 환상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디지털 아트 작업인 만큼 물감으로 그린 그림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수상을 받은 이 작품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중 하나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1 제임스 앨런, <우주의 오페라 극장>, MidJourney, 2022

많은 사람이 미드저니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대신 생성, 즉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작가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다. 대중의 비판에 대해 제임스 갤런은 작가명에 미드저니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주최 측은 자신들이 미처 미드저니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형 AI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예술까지도 대체하고 있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 지,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AI로 만들어지는 예술작품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작품에 사용된 미드저니 외에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는 DALL-E, Leonardo.Ai, BING 이미지 생성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대중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어도비의 포토샵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명령어(prompt)를 치면, 이를 따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각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초 안에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혹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명령어를 치거나 다른 이미지를 참조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용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이미지를 인터넷 세상에서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이미지를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저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만 쳐서 말이다. AI에 의하여 웹툰 그림작가나 게

임 캐릭터 디자이너, 혹은 화가 등의 시각이미지 창작자의 역할이 없어질 거라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말 예술가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도 예술로 봐야할까?



2
 마르셀 뒤상, <샘>
 1917, ready-made,
 23.5×18cm,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소장

변기? AI?

비슷한 논란이 1917년에도 있었다. 그때는 멋진 이름의 AI가 아니라, 남성용 소변기가 그 대상이었다. 프랑스의 미술가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은 예술이란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품인 변기를 출품하였다. <샘(Fountain)>(1917)^[그림 2]이란 이름으로 출품된 이 작품은 당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 지금 보기에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난해한 이 작품이 당시 미술계에서 수용될 리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뒤상은 비판하면서,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물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방에서 튜브 물감을 사는 것과 같은 예술적 행위라고 말했다. 예술가로서 자신이 선반 위에 놓인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명한 후 전시했기에 이는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점차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면서, 뒤상의 이러한 주장을 시작으로 백남준의 텔레비전 수상기^[그림 3]까지 다양한 일상의 사물들이 예술 속으로 들어왔다.



3

3 백남준, <다다익선>, 1988, 비디오 영상, 한국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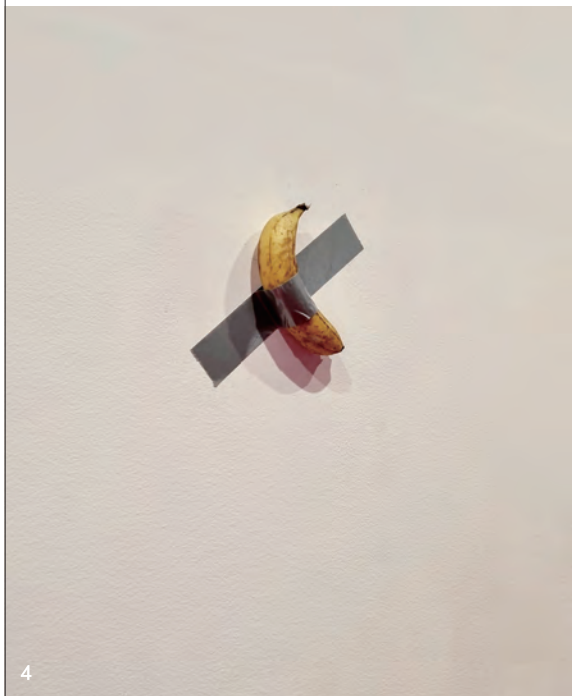
현대미술에서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붓이나 물감, 혹은 대리석이나 나무 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작품 속에 담긴 개념(concept)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얀 캔버스 위에 선을 하나 그어도, 혹은 바나나 하나를 덩 테이프로 붙여도 작품이 될 수 있다.^[그림 4] 심지어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나 냄새, 심지어 진동과 어둠도 예술의 도구가 되고 있다. 물론 그 의미를 관객이 받아들일지 못할 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실제 공간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아트’까지 무한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미지 생성형 AI가 상용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임스 엘런을 비롯한 예술가들은 AI를 경쟁자가 아닌, ‘예술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뒤상이 주장한 대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미술계에서는 <우주의 오페라극장>의 수상을 큰 위기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 이미지 생성형 AI의 작동방식은 먼저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우주의 오페라극장>을 제작하기 위해 작가는 여러 번 명령어를 수정해야 했다. 그리고 이미지를 다시 결합하고 수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기에 이미지 생성형 AI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예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AI의 사용자가 ‘창작자’가 되어 자신의 ‘개념’을 명령어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에 현대미술에서 AI는 흥미로운 새로운 도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미지 생성형 AI뿐 아니라, ChatGPT로 대변되는 언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ChatGPT의 경우 학술 논문이나 의사시험, 회계사 시험 등 숙련된 사람들이 오랜 학습을 거쳐 치루게 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시를 짓거나 짧은 작문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물론 우수한 성적이나 엄청나게 뛰어난 글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쓴 글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갖게 한다. 이미지 생성형 AI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누군가가 손쉽게 명령어를 쳐서,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수십장 만들어 이를 대량으로 찍어낸다면 어떤 인간



4

4 카텔란, <코미디언> 전시 사진, 2023년 5월 00일 저자 촬영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ellan)의 이 작품은 실제 바나나를 은색 덩 테이프로 벽에 고정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한 행위예술가가 전시 기간 중 바나나를 떼어먹은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리고 2023년 리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었으며, 이때 서울대 학생이 또 허락없이 바나나를 떼어먹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작품은 실제 거래가 되었으며, 거래된 것은 작품 설치 방법과 소유권뿐이었다. 설치방식은 매일 새로운 바나나를 새로운 덩 테이프로 붙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이 영원한 하나의 물체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개념적인 작품이다. 물론 작가는 퍼포먼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 그 제작 속도를 맞출 수 있겠는가! 하지만 결국 고양이 그림을 생각하고 대량으로 찍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사람이 해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가가 AI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를 통해 누구나 보다 쉽게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행위예술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이제 AI를 통해 보다 자신의 결과물을 쉽고도 만족스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간 꿈꿨던 예술을 AI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전후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문화공간 리더할레(Liederhalle), 슈투트가르트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1





1 리더할레(Liederhalle)
2 리더할레의 베토벤-모차르트-실러 홀



슈투트가르트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로 독일 내에서도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슈투트가르트와 그 주변 도시를 묶는 클러스터로는 독일에서 3번째 규모이다. 1918년까지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동부를 통치했던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의 본사가 있으며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보쉬도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 중심지로 100여 개 이상의 은행이 자리하고 있으며,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는 독일 내 두 번째로 크다. 독일 남부에서는 뮌헨 다음 가는 도시이다.

우리에게는 발레리나 강수진이 활동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BR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경우처럼 이 도시를 근거지로 한 SWR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이 곳 슈투트가르트에 자리하고 있다. 독일의 주요 대도시들은 문화의 영역에서, 특히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는 대단히 발전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오늘은 슈투트가르트의 콘서트홀인 리더할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리더할레(Liederhalle)

리더할레(Liederhalle)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가곡 콘서트홀 정도 되겠다. 하지만 이름에서 다소 좁은 정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리더할레 그대로 지칭하겠다. 그리고 2차 대전으로 기존 공연장이 파괴되어 '구(Alte)'와 '신(Neue)'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독일어 전문으로는 'KKL: Kultur und Kongresszentrum Liederhalle'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경우 루체른의 KKL 카카엘과 혼동할 수 있기에 통칭해서 리더할레라고 부르기로 한다.

'KKL: Kultur und Kongresszentrum Liederhalle'을 줄여서 리더할레(Liederhalle) 또는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tuttgarter Liederhalle)라 불리는 이곳은 슈트가르트의



3 리더할레 무대에 선 슈투트가르트 바흐 콜레기움

베를린 광장에 있는 문화 및 컨퍼런스 센터이다. 이 곳은 3개의 콘서트 홀과 14개의 회의실 및 의회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할레는 건축가 롤프 구트브로드(Rolf Gutbrod)와 아돌프 아벨(Adolf Abel)이 1956년에 지은 콘서트 홀인 신 리더할레(Neue Liederhalle)로, 전후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문화공간 중 하나로 여겨진다. 표현주의와 유기적 건축의 요소를 순수 예술과 결합한 공간으로, 1987년 주요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다. 1991년 추가로 의회 건물이 완공되면서 리더할레는 문화를 넘어 컨퍼런스 센터로 확장되었다.

슈투트가르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교통이 편리하여 연간 60만 명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중 약 60%는 문화 행사이며, 40%는 회의와 무역 박람회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1,200평의 전시공간과 전체 6천석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투어 연주가 열리기도 했다. 이렇듯 주요 오케스트라나 인기있는 연주자들의 독일 투어 공연에서 슈투트가르트와 리더할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독일 음악계에서는 중요한 콘서트홀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소개가 부족하다.

알테 리더할레(Alte Liederhalle)

Alte 알테는 독일어로 오래된의 의미로, 오늘날 알테 리더할레(Alte Liederhalle) 라고 불리는 원래의 공연장은 1824년에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음악협회의 주도로 1863년~1864년에 커뮤니티 센터로 지어졌다. 건축가는 이전 슈투트가르트에서 베르그빌라와 쾨닉스바우를 만든 크리스티앙 프리드리히 폰 라인스(Christian Friedrich von Leins)이다.

대형 홀은 1875년 추가되었는데 회랑이 있는 반 목조의 집으로 설계되었다. 내부 면적은 400평 규모로 2,500석의 대극장이다. 음향적으로도 우수하여 언론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1910년에는 리노베이션을 거쳐 로비공간이 확장되고 입구는 아르누보 스타일로 현대화 되었지만 1943년 2차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노이 리더할레 (Neue Liederhalle)

1954년, 슈투트가르트 시의 주도로 건축가 아돌프 아벨과 롤프 구트브로드에 의해서 새로운 공연장인 리더할레가

지어졌다. 노이 리더할레는 베토벤, 모차르트, 쉴러의 이름이 붙은 3개의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관 당시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이 건물에 대해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아방가르드 강당”이라고 썼고, 슈투트가르트 심포니의 지휘자 칼 뮐칭거는 “대륙에 그런 음향을 갖춘 콘서트홀은 없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노이 리더할레는 독일 최고의 콘서트 홀 중 하나로 발전했으며 도시의 문화 및 사회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심포니 및 뉴욕 필하모닉 같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이곳에서 연주했으며, 이 밖에도 재즈, 록 및 팝 스타들도 리더할레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가졌다. 특히 1969년 1월, 지미 헨드릭스의 연주는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하였다.

2006년 7월,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하이라이트는 7월 20일 약 500명의 귀빈을 초청한 기념 콘서트였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명인 안네소피 무터(Anne-Sophie Mutter)가 베토벤 홀에서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André Previn)이 지휘하는 SWR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과 무대에 섰다. 최근에는 18개월의 리노베이션 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다시 개관했으나 팬데믹 여파로 그 당시 슈투트가르트 시의

중앙 예방 접종센터 역할을 하기도 했다.

3개의 공연장-베토벤 홀, 모차르트 홀, 쉴러 홀이 있으며 메인 홀인 베토벤 홀(Beethoven Saal)을 소개하자면, 2,089석의 베토벤 홀은 그랜드 피아노를 연상시키는 입체 조각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대칭으로 설계된 최초의 콘서트홀이기도 하다. 내부의 콘크리트 벽은 조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금색 선으로 줄무늬가 있고 갤러리의 콘크리트 난간과 마찬가지로 나무 패널로 추상적인 구성이다. 천장 조명은 크고 넓은 곡선으로 평면도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무대 오른쪽에 있는 오르간은 회전문으로 여닫을 수 있으며 콘크리트 벽은 홀에서 소리를 분산시키고 표면은 음향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흡음 처리되었다.

필자는 지난달 슈투트가르트 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 6월 19일 리더할레를 방문하였다. 약 10여 년 만의 재방문이었다. 당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가 연주되었고 슈투트가르트 바흐 콜레기움이 연주를 맡았는데, 바로크 음악에 정통한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오케스트라이다. 잘츠부르크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음악축제에 초청연주자로 각광받고 있으며, 활발한 녹음활동도 하고 있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음악제는 성황이었다.



4 리더할레 천장조명과 객석 5 슈투트가르트 뮤직 페스티벌 포스터



정구호 스타일 한국무용의 명암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지난 2020년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요인이 화려하고 절도있는 '칼군무'라는 설문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전통춤에서도 칼군무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격식을 갖춘 군무가 특징인 궁중무용이다. 특히 제1호 국가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무(儀式舞)를 일컫는 '일무(佾舞)'는 단어 자체가 하나로 열을 맞추어 춤을 춘다는 뜻이다.

지난 5월 25~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 서울시무용단의 <일무>는 연회에서 추는 정재(呈才)와 제례에서 추는 일무 등 궁중무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54명의 무용수가 하나가 되는 대형 칼군무가 장엄함과 웅장함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서울시무용단 정혜진 단장과 현대무용 안무가 김성훈·김재덕의 안무도 큰 역할을 했지만, 연출·무대·의상·조명 디자인을 도맡아 압도적인 미장센을 만들어낸 정구호의 역할이 크다.

<일무>는 2010년대 이후 한국 무용계의 흐름 가운데 하나인 '정구호 스타일 한국무용'에 속한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영화 미술감독 그리고 브랜드·공간·전시 등의 비주얼을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유명한 정구호는 한국무용에 세련미를 가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5월 초연 당시 4회 공연에서 75%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한 <일무>는 올해 재공연에선 4회 중 3회 매진, 객석점유율 90.6%, 유료점유율 80.2%로 초연을 뛰어넘은 기록을 작성했다. 한국 무

용계 최고의 티켓 파워는 무용수나 안무가가 아닌 정구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실 정구호가 무용 작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꽤 오래됐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현대무용 안무가 안성수의 작품에서 의상과 무대디자인을 담당했다. 그리고 안성수가 안무하고 그가 연출과 의상 등을 맡은 국립발레단의 <포이즈> (2012)는 무용계에 그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빨강, 하양, 검정 등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하되 조명 등을 통해 강렬한 이미지를 구현한 <포이즈>는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된 것은 국립무용단에서였다. 첫 작품 <단>(2013)은 그를 무용계의 핫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화려하되 미니멀한 그의 연출과 무대·의상·조명 디자인은 안성수가 안무한 춤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군자를 모티브로 한 <묵향>(2013)은 그와 전통의 만남이 빛을 발하기 시작된 작품이다. 최현(1929~2002)의 <군자무>를 바탕으로 윤성주 당시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안무한 이 작품에서 그는 아름다운 네 폭의 수묵채색화 같은 미장센을 만들어냈다. 화선지의 흰색을 기본으로 매화의 진분홍, 난초의 녹색, 국화의 진노랑, 대나무의 먹색을 포인트로 한 한복과 조명이 춤과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을 먼저 시각적으로 사로잡는다. <묵향>은 이후 프랑스·홍콩·일본 등 해외에도 초청돼 호평을 받았으며 지역 공연장에서도 여러 차례 초청받았다.

<단> <묵향>에 이어 나온 <향연>(2014)은 정구호와 국립무용단의 협업이 정점에 오른 작품이다.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20여 개의 전통춤을 갈라로 보여주던 <코리아 환타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했다. 한국 전통춤의 명인 조흥동·김영숙·양성욱이 안무를 맡아 11개의 전통춤을 4계절에 해당하는 4막으로 구성한 <향연>은 기존의 한국무용에서 여성 무용



서울시무용단 <일무> 2막 © 세종문화회관



국립무용단 <목향> ©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산조> © 국립극장

수의 춤이 주로 중심을 이뤘던 것에 비해 남녀의 춤을 동등하게 배치해 에너지와 역동성을 높였다. 정구호는 <향연>에서 전통적인 춤사위의 원형은 유지한 채 현대에 맞도록 무용수 구성과 무대 요소들을 해체하고 재정리 했다. 특히 오방색을 작품 전체에 통일성 있게 녹여냄으로써 절제미를 추구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미장센을 내세운 <향연>은 2015년 초연부터 매진을 기록했으며 이듬해 재공연부터 공연 횟수를 추가해야 했다.

하지만 정구호가 국립무용단에서 한국 고전 <춘향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무용극 <춘상>(2017)은 전작들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단> <목향> <향연>은 특별한 줄거리 없이 각각 독립된 전통춤을 아름답게 구성하고 연결하는 작업만으로도 관객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드라마와 캐릭터가 중요한 무용극인 <춘상>에선 미장센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춘상> 이후 국립무용단이 정구호와 손잡은 <산조>(2021)는 다시 무대 미장센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 작품은 줄거리 없이 한국 전통 기악 독주 양식인 산조 특유의 불규칙성과 즉흥성을 토대로 흠어짐과 모임의 미학을 다뤘다. 전통의 철학적 본질을 상징하는 지름 6m의

대형 바위 형상의 오브제가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음악적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삼각형 조형물과 원형 LED 패널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이나 의상 등과 대립을 이룬다. 다만 <목향>이나 <향연>에 비해 추상적인 <산조>는 관객을 드라마틱하게 사로잡지는 못했다.

정구호와 국립무용단의 작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지역의 다른 공공 무용단도 앞다퉈 정구호를 초빙하고 나섰다. 전북도립국악원의 <모약정서>(2019), 경기도무용단의 <경합>(2022)에 이어 서울시무용단의 <일무>까지 이어졌다. 국립무용단의 아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000석 이상의 대극장에 관객을 불러모으는 정구호와 손잡은 것이다.

그런데, '정구호 스타일 한국무용'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평단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구호가 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통의 현대적 소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춤 창작에 있어서 안무 외에 연출과 디자인(미장센)의 힘을 무용계가 인식하도록 만든 것도 소득이다. 오랫동안 장르 순혈주의를 고집해온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다양한 장르 출신 아티스트의 유입 또는 협업을 통해 무용에 대한 관객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장르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그것이 무용 장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객이 없다면 안무가나 무용수의 존재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안무보다 연출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힌 '정구호 스타일 한국무용'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전통춤에 대한 창의적 해석이 부족하고, 스펙타클하지만 단편적인 이미지에 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구호 스타일 한국무용'이 무대와 소재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구성과 한계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국립무용단을 넘어 지역 공공무용단까지 퍼져가는 것이 한국 무용계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는 모두가
로얄석이로구나

D'ART HALL

박나무 자유기고가

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일 테니, 공연마다 정하고 있는 R이 가장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자리일 것이다. R은 로얄석으로 그 이름처럼 왕이 앉아서 보는 자리라, 충성스런 신하들이 잘 알아서 정하지 않았겠나. 18세기 오페라를 보러 오신 왕과 왕족이 앉는 자리에서 유래한 것을 현대의 우리가 그대로 쓰는 셈이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로 등장한게 VIP. 또 어떤 공연에서는 VVIP가 등장하더니 급기야 P(프레지던트)가 가장 최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니, 자리이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 같다. 이제 S나 A는 가장 저렴한 티켓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보고 듣고 싶은 게 다 같지는 않을테니, 나만의 기준을 정해 현명하게 좌석을 고르는 것도 좋다. 독주나 독창이라면 가까이서,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라면 조금 멀리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라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자주 서는 곳을 미리 알면 좋겠지. 극장의 컨디션을 잘 알고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떨 때는 구석에 서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D'ART HALL. '다트홀'이라 불리는 이 곳은 대동대학교가 만든 180석 규모의 공연장이다. 다트홀은 어떻게 하면 객석의 모두에게 잘 들리고, 잘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참 훌륭한 콘서트홀이다. 어떻게 한 자리라도 더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상업적 측면에서는 당연하겠으나, 대학으로서는 그것보다 쾌적한 공간 확보를 중시했다. 그렇게 나온 자리가 180석이고, 모든 자리가 로얄석이고 프레지던트석인 셈이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소외되는 자리가 없도록 반사판과 흡음재를 잘 배치했다. 어디선가는 소





리가 튀겨나와야 되고, 또 어디선가는 삼켜줘야 한다니 과학이 관객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는가 싶다. 소리의 여운이 머무는 시간도 공연장의 중요한 기준이다. 오페라는 2.2초, 영화관은 1초, 강연장은 0.8초를 적절한 잔향의 시간으로 본다 하니 그것 때문에 전용관이 필요한 것이겠지. 콘서트홀은 1.3~1.8초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다트홀은 그것에 몹시 공을 들였다. 클래식 콘서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쿠스틱 배너가 공연의 성격에 따라 미세한 차이들을 조절해준다. 공연장 벽면도 소리의 품질을 위해 내려앉고 튀어나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어느것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게 없으니, 보는 내가 다 고맙다.

다트홀의 또다른 자랑은 스타인웨이앤드선스 피아노. 대동대 뉴뮤직과 강해성 교수가 직접 독일까지 건너가 직접 연주해보고 골라서 공수해온 이 그랜드피아노는 보유하는 것은 자랑이고, 연주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명품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트홀은 피아노 연주자에겐 참 좋은 무대가 아닐 수 없겠다.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이 졸업연주회를 한다거나, 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와 펼치는 귀국연주회, 또 피아노 연주를 겨뤄보는 여러 가지 콩쿠르에 참 욕심나는 공연장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실제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이제 외부대관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침이라니 여러 다채로운 공연이 다트홀을 통해 세상에

로 나올 수 있지 싶다. 2019년 개관 이후 곧이어 맞은 팬데믹이 다트홀의 진가를 묻어두었으나, 이제는 슬슬 바빠지겠다.

대동대 뉴뮤직과 학생들의 좋은 실습장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으니, 조금의 노력을 더하면 수시로 귀호강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뉴뮤직과 정기공연 등이 연이어 열리면서 호응을 얻었으니, 대학과 지역사회가 괴리되어 있지 않고 다트홀을 통해 잘 소통함을 느낄 수 있다. 클래식은 물론 재즈, 락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뮤지컬까지 소화할 수 있는 넓은 무대가 객석을 즐겁게 할 것이다. 기성방송국 수준의 음향과 영상시설을 갖추고 주최측의 필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시대상에 걸맞게 스트리밍으로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도 차질없도록 했다. 샤워실까지 갖춘 대기실에선 공연실황을 보가며 메이크업 등 준비를 할 수 있다. 공연장으로서 최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려면 지금까지는 다트홀을 추천하고 싶다. 더 많은 공연장들이 다트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리라. 그것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문의 D'ART HALL 051-510-4839, 010-4880-4030
darthall.modoo.at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지휘 임희준

하모니카 박기국

◆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3 Summer Fantasy’가 7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인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대중음악을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임희준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반주를 맡아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올해는 1부 뮤지컬과 팝송, 2부 영화 OST로 프로그램을 구성, 한여름 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원곡의 느낌은 유지하되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음색과 공연 컨셉에 맞게 편곡한 곡으로 다채로운 합창음악을 소개한다.

1부 첫 무대는 혼성합창으로 뮤지컬 ‘맘마미아’, 팝송 ‘렛잇비’, 아르헨티나 탱고음악 ‘리베르탱고’, 아일랜드 민요 ‘대니보이’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 테너 수석 최원갑이 하모니스트 박기국과 함께 빌리 조엘의 대표곡 ‘Piano man’을 들려준다.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총감독으로 있는 하모니스트 박기국은 부산 시민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부산 마린하모니카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으며, 그동안 MBC목요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협연,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 개막식 초청연주를 가진 바 있다. 이어서 ‘팬텀싱어’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이탈리아 국민가수 레나토 제로의 따뜻한 위로곡 ‘L'impossibile Vivere’와 뮤지컬 ‘드림걸즈’ 주제곡은 각각 남성4중창과 여성3중창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반주를 맡은 2부에서는 현대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지난 1960년대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동안 전 세계 수많은 영화들의 음악을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모리코네는 지금까지 400여 편이 넘는 영화 및 드라마 음악과 100여 곡에 이르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더욱 유명한 영화 ‘미션’ 중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을 시작으로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유작이자 그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중 ‘데보라의 테마’ 이탈리아어 버전인 ‘E Piu Ti Penso’, 영화 ‘시네마천국’의 ‘Love Theme’를 이태리어로 노래한 ‘Se’, 그리고 세르조 레오네의 ‘석양의 무법자’ 메인테마와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 ‘The Ecstasy of Gold’를 합창으로 들려준다.

일 시 7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지휘 서진



바이올린 김재원

◆ **최근 정기연주회 600회라는 기념비적인 무대를 성황리에 마쳤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7월 21일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로 관객과 만난다.**

섬세하고 드라마틱한 지휘로 정평이 난 계명대학교 서진 교수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자신이 애정하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7번과 함께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지휘자 서진은 일찍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 음대를 거쳐 스위스 바젤 국립음악대학원에서 첼로 전공으로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악대학원 지휘과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했다. 2007년 한국인 최초로 크로아티아 제4회 로브로 폰 마타치치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진지한 음악적 해석과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파판도 폴로 현대음악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서진은 그동안 독일 브란덴부르크 심포니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부

천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음악감독, 챔버 앙상블 에이블뮤직그룹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현대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 평가받는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특히 이 곡은 협연자의 화려한 기교가 요구되는 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연주로 들려준다. 김재원은 만16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학사 졸업 후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석사과정에 수석입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라디오프랑스 방송국 초청연주, 파리 국립오페라 아카데미 단원, 정명훈 지휘자가 창단한 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인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7번은 프로코피예프가 죽기 한 해 전 작곡한 최후의 대작으로, 간결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매력적이다.

일 시 7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검정고무신**



◆ **1960~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과 우애를 그린 힐링 가족극 '검정고무신'이 7월 2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관객들의 입소문만으로 좌석을 매진시키며 서울 대학로에 진출, 호평을 받은 '검정고무신'은 지금까지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극 '검정고무신'은 과거 고무신짝 하나 제대로 사 신을 수 없었던 가난한 시절, 홀로 육남매를 키우던 어머니가 병들어 죽은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매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철부지 동생들을 돌보며 가장의 의무를 다하는 첫째 딸 진실이, 뭐든 하고 싶은 철없는 둘째 야동이, 구두 닦아 누나를 돕는 착한 셋째 갑동이, 먹어도 먹어도 늘 배고픈 개구쟁이 넷째 양동이, 일찍 철이 든 착한 다섯째 봉실이,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두고 간 막내 업동이가까지,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가족들의 일상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검정고무신'은 관객을 먼저 생각하며 소통하는 예술을 지향하

는 극단 에저또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로, 현대사회 속 잊고 지내던 따스한 가족애를 일깨워준다. 어떠한 역경도 함께 하며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곳곳하게 이겨냈던 낭만이 있고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던 그 시절의 아련한 이야기를 통해 지나간 순수했던 어린시절, 동심으로 잠깐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가난했던 그 때 그 시절의 한 가족사를 통해 10대들에게는 웃음을, 20~30대에게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40~50대 이상 중장년층들에게 아련한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극단 에저또 대표 최재민이 맡았으며, 김지연, 정용원, 최재민, 박준현, 임선미 등 극단 에저또 단원들이 출연한다.

지난 1966년 창단한 극단 에저또는 실험적인 젊은 연극 운동의 제언자로, 국내 최초의 언더그라운드 연극을 시도하여 최초의 판토마임 공연과 가두극을 공연했으며, 극단 전용 소극장을 국내 사상 처음으로 마련하여 소극장 운동을 펼쳤다. 창단 당시의 설립 목적을 이어받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정통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아동극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무대에 올리며 부산의 대표적인 극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일 시 7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8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데스노트



원작: 히카리 야기타

◆ 2022 시즌 역대 최단기 전회 전석 매진의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뮤지컬 ‘데스노트’가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이름을 쓰면 죽게 되는 데스노트를 우연히 쥘게 되면서 노트를 이용해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와 그에 맞서는 베일에 싸인 명탐정 엘(L)의 양보할 수 없는 두뇌 싸움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작품으로,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만화 ‘데스노트’는 일본에서만 3,000만부 누적판매량을 돌파하고 전 세계 60개국에서 발행되어 대히트를 기록했으며, 이후 애니메이션과 영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키라’라고 불리며 데스노트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고자 하는 ‘라이토’, 천재적인 추리로 전 세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해 온 명탐정 ‘엘(L)’, 데스노트의 원래 주인인 사신 ‘류크’와 ‘렘’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다른 데스노트를 지닌 ‘미사’의 등장으로 이 둘의 대결은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패배를 모르는 두 천재의 치열하고 잔인한 두뇌 게임이 시작된다. 과연 데스노트로부터 시작된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인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의 공동제작으로 초연된 뮤지컬 ‘데스

노트’는 지난해 제작사 오디컴퍼니를 만나 5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지난 작품과 달리 논 레플리카(Non-Replica) 버전(원작의 메뉴얼대로 하는 레플리카 방식과 달리 현지의 정서와 트렌드에 맞게 각색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 정서와 트렌드에 맞춰 대본과 음악을 수정하면서 속도감 있는 전개와 감각적인 연출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극중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지킬 앤 하이드’, ‘황태자 루돌프’, ‘웃는 남자’ 등 수많은 흥행작을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혼의 드라마틱한 음악, 그리고 경사진 바닥과 벽면, 천장 3면을 LED 1,380장으로 채운 무대와 6톤에 달하는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데스노트’는 지난 1월 개최된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는 작품상과 연출상, 무대예술상, 남자조연상 등 4관왕으로 최다 수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엘’ 역은 김준수와 김성철, ‘라이토’ 역은 고은성과 홍광호, 사신 ‘류크’ 역은 서경수와 장지후, 아이돌 ‘아마네 미사’ 역은 류인아와 장민제, 사신 ‘렘’역은 이영미와 장은아가 캐스팅됐다. 초연부터 함께한 김준수와 홍광호는 독보적인 아우라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2022년 함께 캐스팅된 고은성, 김성철 역시 그들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일 시 7월 26일(수)-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7:00(월요일 공연없음, 7/26일·8/1일 오후 2:30,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14세 이상 관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0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이동훈 취임연주회 新, 念願(염원)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 ‘新, 念願(염원)’이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무대에서는 이동훈 예술감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특히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독특한 창법으로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이 출연,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의 대표곡으로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신임 이동훈 예술감독은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동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국악교육정책을 졸업한 후 단국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국악지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ASIA전통오케스트라 부지휘자(2016~2018년), 영동군난계국악단 상임지휘자(2016~2017년),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2018~2023년)를 역임했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등 국내 우수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한 바 있다.

첫 곡으로는 동명의 경기민요를 주제로 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뱃노래’(박범훈 곡)를 들려준다. 특히 이 작품은 거대한 배가 닳을 울

리고 출항하는 모습부터 망망대해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송년연주회나 신년연주회, 취임연주회 등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이동훈 예술감독의 새롭게 내딛는 첫 걸음을 응원한다. 이어지는 곡은 거문고 협주곡 ‘숨’(이정호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부수석 오상훈이 협연한다. 재즈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메나리토리/Autumn Leaves’(이동훈 편곡)는 1950~60년대 최고의 리얼재즈 선구자라 불리며 현재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색소폰리스트 이정식의 연주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불교 철학자인 목정배 교수가 쓴 가야금 예찬 시를 가야금 연주자가 연주 중간에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작곡한 25현 가야금 협주곡 ‘가야송’(박범훈 곡)은 지난 1999년 KBS국악관현악단의 초연무대에도 섰던 가야금주자 김일륜이 협연한다. 김일륜은 KBS국악대상 현악부문(2002년),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특별상(2002년), 한국예술발전상(2008년), 관재국악상(2023년) 등을 수상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중앙가야금합주단 대표, 중앙가야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다. 이어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이 그의 대표곡 ‘찔레꽃’, ‘꽃구경’, ‘봄날은 간다’, ‘아리랑’을 들려준다.

일 시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상상을 찍는 작가 에릭 요한슨 사진展



1 <섹션_1 혼자만의 여행> ©Sunriser, 2020

2 <섹션_2 내가 보는 세상> ©Day Breaker, 2018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Erik Johansson) 사진전이 10월 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벤 구센스(Ben Goossens), 딘 체임벌린(Dean Chamberlain), 홀거 푸텐(Holger Pooten) 등과 함께 가장 촉망받는 사진작가로 평가받는 에릭 요한슨은 여타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처럼 단순한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이 아닌, 작품의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함으로써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사진 속에 가능한 세계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상충된 개념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부산에서는 처음 만나는 이번 전시는 <혼자만의 여행>, <내가 보는 세상>, <추억을 꺼내 본다>, <나만의 공간>, <미래의 일상>, <All New> 총 6가지 섹션으로 구성, 스토리별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신작 3점이 전시되며, 유명 도슨트의 해설프로그램과 더불어 관람객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포토존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상상할 여유를 잃은 현대인들에게 상상력이 주는 즐거움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준다.

일시 6월 27일(화)-10월 8일(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일반(만19세 이상) 1만8천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2천원

문의 Hteam 070-7008-8905



3



4

“초현실적인 그림이나 사진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죠.”

- 에릭 요한슨(Erik Johansson)



5

©Erik Johansson / CCDC 2023

- 3 <섹션_3 추억을 꺼내 본다> ©Let's Leave, 2013
- 4 <섹션_4 나만의 공간> ©Work Together, 2020
- 5 <섹션_5 미래의 일상> ©Full Moon Service, 2017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로 완성한 말러 교향곡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0회 정기연주회

◆ **곽근수** 음악평론가

말러는 <대지의 노래> 제6악장 끝에 스스로가 지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이걸 가사로 삼았다.

내 마음 고요히 그 때를 기다리네!
사랑스러운 대지 어디에나
봄에는 꽃피고 다시 푸르게 자라리!
어디에나 영원히
하늘은 푸르게 빛나리!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 연 ‘영원히, 영원히 *Ewig, ewig*’를 무려 일곱 번이나 외치고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곡을 마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원 *Ewig*’이라는 모티브와 멜로디를 제9번 교향곡 1악장을 열면서 또 되새김질 한다. 말러가 사용한 ‘영원’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맞게 되는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 당시 말러가 얼마나 심각하게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증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지의 노래>와 교향곡 제9번을 삶에 대한 이별을 준비한 일련의 작품군으로 해석한다.

사실은 <대지의 노래>는 말러의 아홉 번째 교향곡인데, 베토벤 이후 꽤 많은 유명 작곡가들이 교향곡 제9번 이상을 쓰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공포를 느껴 교향곡 제9번이라는 제목을 달지 못하고 <대지의 노래>라는 표제를 달았다. 카리얀은 이 교향곡을 “다른 세상에서 온 음악이다, 아마도 어떤 영원한 것(세상)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감격해 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을 연주할 때마다 구도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수열 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1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왔다는 그 음악을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 대단한 완성도로 참으로 말려답게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단한 파워로 객석을 지네들 맘대로 쥐락펴락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에너지로 제압당한 객석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모습이였다.

필자는 1971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를 들어왔다. 13년간 정기연주회 해설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같은 특별한 체험에 대한 기억은 그리 흔하지 않다. 1989년, 한국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구소련) 수석지휘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취임한 마크 고렌슈타인(Mark Gorenstein, 1946년~ ,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전 음악감독)이 첫 콘서트에서 들려 주었던 그 놀라웠던 스트링 앙상블을 지금도 가끔씩 추억한다. 단지 지휘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현악 앙상블 사운드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당시엔 정말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었다.

아무튼 고렌슈타인 이후 내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듣고 나서 가슴이 이토록 강렬하게 움직인 건 처음이라고 해도 좋겠다. 나는 최수열 감독이 이 작품에 모든 걸 다 걸었다고 생각했





다. 그 자신을 완벽하게 작품에 이입시킨 것이 내 눈에 완연하게 보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연주 결과가 그걸 설명했기 때문이다. 최 감독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대단한 자유스러움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플레이어를 통제했다. 견고한 카리스마와 유연하고 넉넉한 컨트롤을 통해 까다롭고 난해한 작곡가의 의도를 영화를 보여주듯 객석에 풀어 주었다. 40대 초반의 젊은 지휘자에게 분명히 이 작품은 높은 벽이었을 텐데도.

특히 4악장 아다지오에서 그가 만들어 낸 환상적 스트링 앙상블 사운드는 털이 쭈뼛 서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엑스터시의 세계를 열어젖혔다. 말러 스스로도 이 악장에선 의도적으로 관악기를 소외시키고 오로지 스트링으로만 소멸해 가는(죽어가는 dying) 인간의 모습을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엄청 드라마틱하게 그리려고 작정했다. 최 감독은 거기에서 자신의 음악적 결기를 죽기 살기로 투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이런 사운드를 만들다니.

플레이어들의 준비도 충분했다. 혹자는 <교향악축제 효과>라고 비틀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물을 객석에 선물했다. 끝자리로 갈수록 석고상처럼 따로국

밥 먹는 멤버가 이번엔 단 한명도 없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음악의 體化(Integrate)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지극히 여린 활긋기에서 조금씩 흔들리거나 대오가 흐트러진 건 이번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대신 변명한다. 그건 이 악단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 살 떨리는 콘서트 리뷰를 흠집 내고 싶지 않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00회 콘서트를 하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던 말러의 제9번 교향곡. 이에 앞선 599번의 콘서트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었겠지만, 제600회 콘서트는 탁월한 선곡이었고, 참으로 탁월한 연주였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이 작품의 지휘자와 플레이어들은 제4악장 아다지오를 모두 마치고 나서 통상적으로 20~30초 간 정도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한 생명의 이별(소멸)을 응시한다. 지휘자는 손을 내리지 않고 플레이어들은 악기와 활을 내리지 않은 채. 그런데 최수열 감독은 그 침묵의 시간을 1분 이상 지속시켜 그것이 객석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단한 임팩트를 가했다. 최 감독의 그 연출에 청중들도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참여했다. 참으로 귀한 체험이었을 게다. So Amazing!

부산문화회관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유홍준

일 시 | 7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네 번째 주인공은 인문교양서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전국에 문화재 답사여행의 돌풍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유홍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를 거쳐 2004년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해박한 지식과 특유의 언변으로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미술사적 지식을 널리 나누고 있다. '한국미술의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미술작품, 조형물, 문화재 등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 첼로/홍승아 • 피아노/장희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일 시 | 7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6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와 세계적인 명성의 베를린 필하모닉의 현역 첼리스트 12명으로 구성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무대.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이로운 사운드와 풍부한 하모니를 자랑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늘날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를 있게 한 율리우스 글레켈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를 비롯하여 클래식에서부터 탱고,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연주회
하모니 피아노 콰르텟

일 시 | 7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피아니스트 박정현은 중앙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퓨전앙상블 하모니 음악감독으로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은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미국 존홉킨스대학교 피바디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뮤지앙상블 예술총감독으로 있다. 비올리스트 최영식은 한양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으며, 첼리스트 정서은은 한양대학교 및 동대학원, 미국 존홉킨스대학교 피바디음악원을 졸업하고 피바디 스트링스 멤버, 월드브릿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슈만의 피아노사중주를 들려준다.

부산시립예술단
토코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일 시 | 7월 6일 목요일 오후 2:00, 7:30,
7일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단체관람 별도 문의)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0, 3113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토코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세비아의 이발사'는 지난해 '우라이 첫 오페라'를 콘셉트로 첫선을 보인 작품으로, 특히 한 편의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갈라 공연으로 구성,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와 토코로 작품의 이해를 도와준다. 올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2023년부터 부산 활동을 시작한 백승현 지휘자가 새롭게 합류하고, 연출가 이의주가 다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정서미(정송이)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7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독일 언론으로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뒤흔든 연주(WDZ)'라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정서미(정송이) 독주회. 독일 쾰른 국립음대 연주자과정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실내악/반주 마이스터, 최고연주자과정을 수학하며 최우수 입학 및 졸업한 정서미는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서미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다 귀국,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귀국독주회 이후 독주,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판타지아 라단조 작품 397
슈베르트/방랑자 환상곡 작품 15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예림회 피아노 듀오 시리즈 XII
with Ukraine Ivano-Frankivsk
Philharmonie

일 시 | 7월 9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클래식예술기획 02-775-8600



이화여자대학교 함영림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 매 공연마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연구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예림회의 피아노 듀오시리즈 12번째 무대. 마치에이 코타르바가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이바노 프란코 프스크 필하모니(Ivano-Frankivsk Philharmonie)와 함께 바흐, 모차르트, 폴락, 멘델스존의 피아노 듀오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함영림
- 피아노/김해리&이현진, 강소연&박우빈, 정은정&최수은, 홍상희&김주혜, 박우빈&강소연, 이진&이아람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카르멘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 꽃

일 시 |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첫 무대.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로,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인 이주현이 해설하고, 아나운서 손지현 진행하는 오페라

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이다. 첫 번째 무대는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 꽃, 오페라 '카르멘'으로, 오페라 주요 아리아와 카르멘과 연관되는 다양한 그림에 대해 살펴본다.

- 미술관장/이주현
- 해설가/손지현(아나운서)
- 소프라노/박현진 • 메조소프라노/김예원
- 테너/허동권 • 바리톤/강경원
- 피아노/이소영

첼리스트 김규식의 전국투어 리사이틀 베토벤

일 시 |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무누스 앙상블 리더이자 총무아트홀 '크로스오버 페스티벌' 감독, 경기도 광고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김규식의 전국투어 부산무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독일 에센 국립음대를 거쳐 영국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김규식은 2018년 대한민국 최다인 10개 도시 11회의 전국투어 리사이틀, 2019년에는 음반 'Wooden Songs' 발매 기념 전국투어, 그리고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연주자로서 유일하게 6개 도시 전국투어를 성황리에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의 주다스 마카베우스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을 비롯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작품 5-2, 102-1, 102-2를 들려준다.

- 피아노/신재민

음악극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7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작곡동인 SEUM 010-7600-4514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로 결성된 작곡동인 SEUM세움의 음악극 '부산을 노래하다'.

작곡동인 SEUM은 그동안 음악을 연구하고 교류하며, 더 나은 창작활동 방식을 모색하며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단

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남자와 서울 여자의 부산 데이트를 통해 부산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합창,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음악극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일 시 | 7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3 Summer Fantasy'.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올해는 특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반주를 맡아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1부 뮤지컬과 팝송에 이어 2부에서는 영화 OST로 한여름 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원곡의 느낌을 유지하되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음색과 공연 콘셉트에 맞게 편곡한 곡으로 다채로운 합창음악을 소개한다.

- 지휘/임희준(부지휘자)
- 연주/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일 시 | 7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섬세하고 드라마틱한 지휘로 정평이 난 계명대학교 서진 교수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1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자신이 애정하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7번과 함께 프랑스 툴루즈 카피틀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2007년 한국인 최초로 크로아티아 제4회 로브로 폰 마타치치 국제지휘콩쿠르에서 '파판도플로 현대음악상'을 수상한 서진은 현재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음악감독으로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The Solist

일 시 |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현악기를 비롯해 플루트, 호른, 트럼펫, 트롬본,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독주를 들려준다.

오후 4:00 연주자
 송예빈(비올라), 김예빈(바이올린), 김성민(호른), 김서현(첼로), 김선영(바이올린), 김나영(플루트), 전성해(베이스), 서기영(바이올린)

오후 7:30 연주자
 최예은(바이올린), 윤서영(비올라), 주예준(트럼펫), 이재원(베이스), 황지원(바이올린), 정진욱(트롬본), 장선아(첼로), 성형원(타악기)

더 부산 혼 사운드 제6회 정기연주회 문화예술 도시 부산의 올림 운명

일 시 | 7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더 부산 혼 사운드 010-8733-7438,
 010-9049-3990



2016년, 다소 낯선 호른이라는 악기의 아름다운 울림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더 부산 혼 사운드의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우리동네 클래식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교육프로그램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꾸준히 관객과 만나온 더 부산 혼 사운드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른리스트 25인이 뿜어내는 장대하고도 가슴벅찬 합주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한다.

- 지휘/김영민 • 합창지휘/김종석
- 대표/오원택 • 해설/김윤선
- 작곡/엄찬우
- 협연/박세리(판소리), 조은채(호른)
- 특별출연/엄마랑 아이랑 합창단

2023년 국제콩쿠르 입상자 김설화 독주회

일 시 | 7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올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Fujairah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3위, 스페인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Clamo Music에서 2위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김설화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1년 만에 조기 졸업한 김설화는 어려서부터 국내외 우수 콩쿠르를 석권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오스트리아, 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다. 부산 무대에 앞서 7월 25일 김해 남양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 김설화는 이번 무대에서 쇼팽과 스카를라티, 슈베르트, 리스트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0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이동훈 취임연주회 新, 念願(염원)

일 시 |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 이동훈 예술감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 프로그램**
- 박범훈/국악관현악을 위한 '뱃노래'
 - 이정호/거문고 협주곡 '숨'
 - 이동훈(편곡)/재즈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메나리토리/Autumn Leaves'
 - 박범훈/25원 가야금 협주곡 '가야송' 등
 - 지휘/이동훈 • 사회/손지현
 - 거문고/오상훈 • 색소폰/이정식
 - 가야금/김일윤 • 소리/장사익

트리오 벨리노 창단연주회

일 시 |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최종완, 첼리스트 이희수, 피아니스트 이보미 등 젊고 패기있는 열정적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트리오 벨리노의 무대.

최종완은 독일 예센 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수석, 라인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이희수는 경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및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한 이보미는 현재 부산예술중·고에 출강하고 있다.

독일에서 공부한 인연으로 결성된 트리오 벨리노는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 아렌스키/피아노 3중주 제1번 작품 32
 -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지브리 페스티벌

일 시 | 7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5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5천원
 문 의 | (주)스튜디오 지브리 02-2658-3546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감성적인 영화와 음악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스튜디오 지브리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지브리 페스티벌.

2022년 11월 예술의전당, 2023년 2월 롯데콘서트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지브리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익숙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오리지널 OST에서부터 클래식 작곡가별 스타일로 다양하게 재해석된 지브리 음악까지 친숙하고도 색다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JTBC 드라마 '밀회'의 대역 및 OST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60인조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한층 깊어진 연주를 들려준다.
- 피아노, 해설/송영민 • 지휘/안두현

트리오피아체 연주회 생상스&멘델스존의 만남

일 시 | 7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정윤혜,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결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오서너스 아트홀 초청 연주회, 동남권원자력학원 초청 희망의 음악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렉처 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선정, 영산아트홀 우수연주단체 선정, 부산MBC목요음악회 초청연주, 아트뱅크코레아 2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스와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부산 버스킹 페스타

일 시 | 7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지역의 대중예술인 발굴과 부산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3 부산 버스킹 페스타'.

지난 4월 버스킹 예선을 거쳐 선정된 3인용스윙텟, The Tunas, 밍글, 옐로은, 오빠야문열어떨기사왔어, 용용쿨테, 집시유랑단, 콩코드유니버스, 현마밴드, 휴고 등 10개 팀의 본선 공연과 함께 특별게스트 딕펄스의 무대가 펼쳐진다.

딕펄스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스타K 4'에 출연,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준우승한 후 평범함을 거부하는 음악, 감성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대표 인디밴드로 자리매김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일 시 |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 오전 10:20, 12일 오후 2:00
(월-화요일 공연 없음)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라이브(주) 02-332-4177



(재)부산문화회관과 라이브(주)가 2년에 걸쳐 공동 기획·제작한 웰메이드 K-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부산의 문화 아이콘이자 국내 1위 인기 스포츠 '야구'와 세계가 주목하는 K-뮤지컬의 만남으로, 가상의 부산 유소년 야구단 '마린스 리틀 야구단'을 배경으로, 전국 최강을 꿈꾸는 '마린스 리틀 야구단'의 꿈과 열정, 갈등과 화해, 성장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12인의 성난사람들

일 시 | 7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로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12인의 성난사람들'.

프롤로그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배심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극적 구조와 긴장감을 넘치는 언쟁 장면을 통하여 관객들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킨다.

지난 2016년 초연한 후 2017년, 2019년까지 전석 매진의 신화를 이루며 호평받은 이번 작품은 2017년 한 해만 제4회 이데일리문화대상 연극 부문 최우수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6 공연 베스트7, 공연과 이론 작품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7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8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960~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우애를 그린 힐링 가족극 '검정고무신'.

이번 작품은 과거 고무신 짝 하나 제대로 사 신을 수 없었던 가난한 시절, 홀로 육남매를 키우던 어머니가 병들어 죽은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매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의 한 가족사를 통해 10대들에게는 웃음을, 20~30대에게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40~50대 이상 중·장년층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 출연/김지연, 정용원, 최재민, 박준현, 임선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데스노트

일 시 | 7월 26일(수)-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7:00(월요일 공연 없음, 7/26일·
8/1일 오후 2:30,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시즌 역대 최단기 전회 전석 매진의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뮤지컬 '데스노트' 부산공연.

특히 극중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지킬 앤 하이드', '황태자 루돌프', '웃는 남자' 등 수많은 흥행작을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혼의 드라마틱한 음악, 그리고 경사진 바닥과 벽면, 천장 3면을 LED 1,380장으로 채운 무대와 6톤에 달하는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 출연/김준수, 김성철, 고은성, 홍광호, 서경수, 장지후, 류인아, 장민제, 이영미, 장은아 외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일 시 | 7월 29일-3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소극장**
문 의 | 오오씨어터 622-5550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공연예술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에 선정된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토장군을 찾아라!'는 판소리 '수궁가'를 오늘날의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 가족뮤지컬로, 화려한 바다와 웅장한 육지를 오가는 별주부 자라와 토선생의 목숨을 건 이야기기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와 무대를 가득 채운 안무 속에 펼쳐진다.

2021 방방곡곡문화공감 뮤지컬분부에 선정됐으며, 2021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특별공연 초청, 2022 부산우수예술지원사업 재지원부분 선정, 2023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공식메이킹작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음악

수아트홀 기획공연

일 시 | 7월 1일 토요일 오후 2:00,
22일 토요일 오후 5:30 수아트홀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숨겨진 젊은 음악가들을 발굴, 연주무대를 제공하는 수아트홀 '청춘의 매직' 시리즈.

1일 오후 2:00 청춘 풍류 국악제

실내악 편성의 합주곡 '천 년만세'를 비롯해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곡 '태평가, 청춘가, 매화가'를 가야금, 해금, 대금의 소리로 감상하며, 재즈에서부터 상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국악연주로 들려준다.

- 연주/이한빈, 채영훈, 조은애, 이민영

22일 오후 5:30 청춘 달콤 클래식

피아노 듀오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청춘 달콤 클래식.

- 연주/오은영&서고은, 서숙지&박선희, 길종환, 이지연, 한상원&서숙지&오경은

부산작곡마당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작곡마당 513-1009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청중들과의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창작음악에 새로운 대안의 작곡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작곡마당 정기연주회.

특히 부산작곡마당은 올해로 6년째 신진 작곡가들을 위한 작품공모를 가져오면서 올해 이신원, 장지현, 전종범 등 3명의 신진 작곡가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 작곡/오세일, 김하은, 노재봉, 홍수정, 백현주, 진소영, 김중완
- 합창/부산지휘자합창단(지휘/김강규)
- 소프라노/강소영 • 플루트/장예지
- 클라리넷/유지훈 • 오보에/박시연
- 호른/강민주 • 바순/문혜리

영미오페라 페스티벌 The Telephone & A Game of Chance

일 시 | 7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아트내상스 010-9204-5854



인간의 캐릭터를 중심 소재로, '관계'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내는 현대오페라 두 편을 소개하는 영미오페라 페스티벌.

20세기 후반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작곡가라 할 수 있는 메노티의 'The Telephone', 블랙 코미디

의 대가 세이무어 바랍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작 'A Game of Chance' 등 두 편의 단막 코믹 오페라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 지휘/전병화 • 연주/이음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김민혜, 바리톤 강경원(The Telephone), 소프라노 박현진·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A Game of Chance)

7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6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 인 브랜드공연 '금정수요음악회' 7월 무대.

5월(제822회) 비라스 제4회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 울산, 대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결성된 비라스(Brass)의 무대.

지난 2016년 금관5중주로 창단한 후 현재 금관 15중주 앙상블로 활동하며 금관악기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비라스는 여성 연주자들만의 섬세함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조화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 비제/카르멘 모음곡
- 무소그스키/전람회의 그림

- 트럼펫/김신희, 유희원, 김호빈, 한윤승
- 호른/김지은, 김가원, 박재은
- 트롬본/박소정, 이해은, 김경민
- 유포늄/곽선애, 김서희
- 튜바/정가희
- 퍼커션/박혜령, 장아연, 장지현, 윤이승

12일(제823회) 박소진, 윤예지 피아노 듀오 콘서트 'From America to Russia'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에서 같은 음악의 길을 걸어온 피아니스트 박소진, 윤예지의 듀오 무대.

거슈윈, 바버, 아렌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네손을 위한 다채로운 곡을 두

연주자의 멋진 앙상블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거슈윈/네손을 위한 3개의 프렐류드
- 바버/네손을 위한 피아노 모음곡 '추억' 작품 28
- 아렌스키/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1번 작품 15
- 라흐마니노프/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작품 17

19일(제824회) Tango Morderno(현대의 탱고)



작곡가 겸 반도네오니스 트 김중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으로 구성된 친친탱고의 무대.

영어로는 가벼운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스페인어로는 '건배', 그리고 우리말로는 '친한 친구의 줄임말

인 친친탱고는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탱고음악에 매력을 느껴 모인 팀으로, 누구나 탱고음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인 피아졸라의 명곡과 친친탱고만의 자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김중완/파리의 노을, 엘리제를 위한 탱고, 혁명, 단역, 간극, 달맞이
- 피아졸라/두려움, 잔노와 폴, 천사의 죽음, 악마에게 가져, 잘가요 아버지, 친친, 라베르탱고
- 객원연주/이영훈(퍼커션)

스페이스 옴 7월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옴**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

누구나 쉽게 예술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강좌 등을 열어온 스페이스 옴 7월 음악회.

7일(제506회) Beyond the Phantasy



최고의 팀워크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스피렌데라 앙상블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남가영,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신윤경, 피아니스트 이안나 등 부산, 경산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실력있는 솔리스트 4명이 모여 지난 2020년 10월 창단한 스피렌데라 앙상블은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뜻을 지닌 팀 이름처럼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만나 빛나는 앙상블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 영화음악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14일(제507회) 흘러가는 구름처럼



첼리스트 우리라와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경태로 구성된 듀오 뉘아쥬(Duo Nuage)의 무대.

'Nuage'는 프랑스어로 '구름'이라는 뜻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나타나는 구름처럼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 여정과 같은 음악을 하고자 결성됐으며, 그동안 다수의 살롱음악회를 비롯해 2020 bama art pare에서 작가 박자용과 미디어아트 콜라보 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빌라 로보스/브라질풍의 바흐 '아리아'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 등

21일(제508회) 한여름 밤의 꿈



피아니스트 김나경과 플루티스트 박은아가 펼치는 듀오 무대. 한여름 밤에 어울리는 피아노와 플루트의 청

량한 선율을 만날 수 있다.

28일(제509회) Trio Y-Atti



연세대학교 기악과 동문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음악활동을 가져온 바이올리니스트 김준영, 첼리스트 하경희,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트리오 아띠의 무대.

'Y-Atti'는 '친한 친구, 오랜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클래식 본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클래식 소품, 재즈,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여름 밤을 열정적인 탱고의 감성으로 채운다.

프로그램

아길라/탱고 트리오 작품 기 알렉산더 로젠블라트/탱고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부산피아노트리오 2023 정기연주회 음악가의 회상

일 시 | 7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트리오 010-4400-7038
 ...



1962년 창단한 후 국내 최장수 실내악단의 전통을 이어온 부산피아노트리오 정기연주회.

현재 피아니스트 권준(고신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의대 교수), 첼리스트 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로 구성된

부산피아노트리오는 그동안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전해왔다.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아 '음악가의 회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피아노트리오 창단멤버였던 제갈삼 선생의 'Elegie'를 비롯해 라흐마니노프, 스메타나 등 슬픔의 노래로 아픔을 승화시킨 작곡가들의 '엘레지'를 들려준다.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시노두스심포니오케스트라 010-8733-7438
 ...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 경남의 음악발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 및 특별연주회를 비롯하여 2002 부산아시아게임 초청연주회, 부산바다축제 기념연주, 김해 가야문화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명실공히 부산, 경남권을 아우르는 연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최연소 임용되어 현재까지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호선이 협연한다.

- 단장/정우영 • 지휘/이동신
- 피아노/임호선 • 작곡/김종완

비르투오조 앙상블 2023 정기연주회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작품들

일 시 | 7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비르투오조 앙상블 010-8325-3588
 ...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훌륭한 작품을 남긴 거장의 작품을 통해 시대별 바이올린의 연주기법과 음악적 표현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로, 코렐리, 비발디, 파가니니, 슈포어, 사라사테, 크라이슬러, 시벨리우스 등 17세기부터 지금까지 바이올린 명곡을 솔로에서부터 앙상블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들려준다.

- 바이올린/백재진, 김도경, 조무중, 이현우
- 비올라/박지수, 나윤채 • 첼로/조명환, 윤주연
- 피아노/서혜리, 정성혜

소리에 가락을 얹어 나르샤

일 시 | 7월 21일 금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우리소리 우리가락 염미향
 010-2311-6533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염미향 대표와 우리 소리와 가락이 좋아 함께 배우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단원들로 구성된 우리소리 우리가락의 무대.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로, 영남농악 사물놀이와 서도민요, 경기민요, 장구치며 노래하는 가요장구, 평안도 농사짓는 모습을 재현하는 연희극 '향두계놀이', 그리고 관객과 함께하는 신명넘치는 놀이한마당으로 우리 전통의 멋과 신명을 전한다.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한여름 밤의 멜로디

일 시 | 7월 23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술성악회 010-3884-4623



부산예술성악회 대표이자 영광도서 문화홀 성악교실 주임강사, 부산 칼빈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경성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효성가톨릭음악대학원 성악과 수료, 동서대학 선교음악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이탈리아 Gaspare Spontini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에 있는 조신미는 그동안 다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김성희/당신과 함께 하리라
 푸치니/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느 개인 날'
 토스티/기도 등 수록
 • 피아노/고영주

판타지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일 시 | 7월 22일-2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에서 수학한 실력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입체영상이 함께하는 스펙타클한 무대와 시대의상, 과감한 캐릭터 분장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손옥
- 연출/허복영
- 지휘/정금련 • 합창지휘/한성용
- 오케스트라/카메라타 부산
- 합창/그린나래 아트컴퍼니 오페라 앙상블
- 출연/이연진, 박소영, 김준연, 이우정, 권소라, 박나래, 시영민, 최대우, 박은경, 이진영 외

퓨전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7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퓨전앙상블 010-8325-3588



국악과 양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온 퓨전앙상블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지난 2014년 창단 후 동서양의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앙상블 무대로 국악의 대중화와 더불어 새로운 악기들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며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앙상블로 성장해온 퓨전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누에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해설/김윤선
- 가야금/이명일 • 해금/최유리
- 피리/권미정 • 장구/이호빈
- 소리/강은미 • 피아노/서혜리
- 바이올린/백재진 • 첼로/김민성
- 오보에/박종관 • 성악/구민영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7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선택한 차세대 영화음악감독 TOP 4

일 시 |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국내 유일무이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선택한 차세대 영화음악감독 변동욱, 정나현, 최종호, 손한묵의 4인 4색의 음악을 담은 특별한 무대.

변동욱은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인기 드라마 음악을, 정나현은 할리우드 스타일의 웅장한 음악을 선보이며 영화 '보이스', '늑대사냥', '내일의 기억음악' 등을 작업했다. 최종호는 영화 '내게 소중한 너', 카차흐스탄 영화 '불'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소화해 내며 민스크국제영화에서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손한묵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악으로 '간 떨어지는 동거', '오늘의 웹툰' 등 다수 작품에 참여했다.

제48회 짜장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II: 이유빈·황동남 편

일 시 | 7월 2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청소년 및 5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지난 2019년부터 매달 가져온 짜장콘서트 48번째 무대. 부산에서 비약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청년음악가들의 무대로, 서울시 티필하모닉 및 엄정행전 국성악공쿠르에서 입상하고 다수 오페라 주·조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 소프라노 이유빈과 프랑스 레오폴드 벨랑 국제공쿠르 대상, 베지에 국제공쿠르 3위를 차지하고 국립오페라단 60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 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수 오페라에 참여한 바 있는 베이스 바리톤 황동남이 한국가곡을 비롯해 가요,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연극

연극 완벽한 커튼콜

일 시 | 4월 13일(목)-7월 23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12세 이상 관람, 예매 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 번에 두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된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셜록홀즈'가 열리는 공연장의 분장실. 각종 언론사 인터뷰 요청부터 공연 전 점검사항까지 정신없이 돌아가고, 드디어 막 오른 무대는 시작부터 실수연발, 위태위태하게 흘러간다.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에선 공연은 뒷전,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분장실의 민낯을 유쾌하게 그린 '완벽한 커튼콜'은 기발한 연출과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짙은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언플러그드

일 시 | 5월 11일(목)-7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12세 이상 관람, 예매 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아프지만 가슴 뛰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어쿠스틱 기타와 라이브 버스킹으로 그려낸 연극 '언플러그드'. 수년째 무명가수로 활동하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라이브 바에서 잘리고 버스킹을 시작한 남자, 그리고 남자 앞에 나타난 한 여자. 두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듀엣 '오렌지스카이'를 결성하고 인디밴드들의 꿈의 무대, 언플러그드 페스티벌에 초청받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설레었던 순간이 언플러그드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이머시브 연극 아이 좀비

일 시 | 6월 15일(목)-9월 24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2:00, 5:30, 일요일 오후 3: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8:00)
어댑터 플레이스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예술은 공유다 010-3850-1447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공동제작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Immersive) '아이 좀비'. 집 안에 갇힌 앙숙 형제가 좀비세상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관계를 회복해 가는 '아이 좀비'는 특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좀비 장르와 코미디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생생한 입체음향과 특수분장으로 울어름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오싹한 공포를 선사한다.

- 작/세바스찬 가드너, 다니엘 케틀
- 연출/심문섭
- 협력연출/세바스찬 가드너, 나니엘 케틀, 주형준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 6월 23일(금)-9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오감을 자극하는 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주의자 이유리.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고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다. 과연 이들 중 범인은 누구이며, 그녀의 잘린 신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 실 톱 없이 조여 오는 긴장감으로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연극 꿈&청혼

일 시 | 7월 1일(토)-9일(일) 토-일요일
 오후 5:00 **여기는 극장입니다**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 010-5060-2788



안톤 체홉의 단편 희극 두 편을 선보이는 연극 '꿈&청혼'. '꿈'은 욕망과 절제 사이에서 동요하는 두 인물의 섬세한 심리 변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와 남자로 관계성이 변화하는 순간에 드러난 교묘한 심리 묘사가 웃음을 자아내며, '청혼'은 청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소한 오해로 다투며 화해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가는 단막극이다. '아차! 사랑이었지?'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뜬금없이 훑 치고 들어오는 두 가지 사랑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가족뮤지컬 로보카 폴라잡아라! 황금트로피!

일 시 | 7월 8일-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6만6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 시 45% 할인)
 문 의 | ㈜더하람이엔티 1800-6567



2023년 산악구조대와 함께 새롭게 돌아온 '로보카 폴라-잡아라! 황금트로피!'. 지난 2011년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지난해 시즌 5로 종영된 '로보카 폴라'는 경찰차 폴리와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한 팀을 이룬 구조대 이야기로, 단순한 스토리지만 우정, 협동심, 이타심, 안전 등을 강조하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밀렵꾼 악단 포커의 계략에 맞서 빼앗긴 마을의 황금 트로피를 되찾으려는 구조대원들의 이야기가 생생한 특수효과와 함께 펼쳐진다.

뮤지컬 레드북

일 시 | 7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2:00, 6:30, 16일 일요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B석 7만7천원(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전공이엔티 1522-2061



올해 서울공연에서 전체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레드북은 가장 보수적인 시대로 알려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그저 '나'로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는 안나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귀에 꽃히는 중독적인 넘버와 워트 넘치는 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드북'은 2016년 창작산실을 통해 공연된 후 2018년 제7회 예그린 뮤지컬어워드를 시작으로 2019년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지난해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까지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

일 시 | 7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 시 할인)
 문 의 | (주)엔투게터 1544-1555



버스와 교통수단을 캐릭터화한 친근한 등장인물과 현실감 있는 에피소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명의 EBS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꼬마버스 타요'의 새로운 시즌 무대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

이번 무대에서는 꼬마버스 타요와 같은 버스 친구들인 로기, 라니, 가니가 하늘을 나는 용감한 구조 헬리콥터 에어와 불이 나면 신속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프랭크, 사람들이 다쳤을 때 도와주는 급급차 앨리스, 시내를 순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차 패트와 함께 용감한 구조대원으로 곤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일 시 |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3: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7월 14일까지 조기 예매 시 60% 할인)
 문 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필독 도서로 선정한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틀려도 괜찮아'.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며진 참여형 어린이 체험학습 뮤지컬로, 멋지게 대답하

고 싶지만 틀리거나 놀림을 당할까 봐 손들기를 망설이는 아이들에게 자신감 있게 손을 들고 발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특히 무대의 배경이 되는 교실은 '틀려도 괜찮은 곳. 틀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곳'이라 알려주며 어린이들에게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시하라 일깨워준다.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는 슈퍼맘

일 시 | 7월 29일-3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 시 41% 할인)
 문 의 | (주)더화랑이엔티 1800-6567



2011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여 TV 시리즈, 뮤지컬, 토이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엄마 까투리'를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지난 2017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131개 지역 전국 투어를 통해 1,200여

회 공연을 가진 뮤지컬 '엄마까투리는 슈퍼맘'은 이번 새롭게 선보이는 '엄마까투리는 슈퍼맘'은 엄마 까투리와 까병이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흥겨운 멜로디와 감동의 노래,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놀이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 시 | 7월 3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좋은사람들 070-4045-2302



어린이 책의 노벨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려낸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아빠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길에서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아이들의 감성지수를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바쁜 일상에 지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빠들을 대표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가족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댑는 법

일 시 | 8월 5일-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5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 시 40% 할인)
 문 의 | (주)더화랑이엔티 1800-6567



이제까지의 슈퍼 히어로는 잇어라, 상상을 뒤엎는 극강 코믹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댑는 법'.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이탈리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안영은 작가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슈퍼 히어로

의 똥 댑는 법'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똥 댑는 법을 친절하고 명쾌하게 알려 준다. 특히 발칙한 상상력과 유쾌한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즐기는 키즈 오페라

일 시 | 7월 1일 토요일 오후 1:00, 2:30, 4:00
 키자니아 부산 극장
 입장료 | (취사콘노 746-2018)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영화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키즈 오페라.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부산 문화 로컬크리에이터 도시 재생 전문기업 (주)샤콘노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모차르트가 음악으로 그려낸 환상적인 이야기 '마술피리'(오후 1:00, 오후 4:00)와 스페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질투를 그린 비제 오페라 '카르멘'(오후 2:30)을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영상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어린이들을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행사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V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봉래홀
 입장료 | 무료(기수별로 25명 선착순)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열어온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네 번째 시리즈. 올해는 유럽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시작'(1기, 6월 3일~7월 1일), '여성'(2기, 7월 8일~8월 5일), '꿈'(3기, 9월 2일~10월 7일), '사람'(4기, 10월 14일~11월 11일)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오페라의 역사, 미술, 문화, 인물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유럽에서 10년간 전문해설가로 활동했던 김성민 강사가 생생한 현지의 감성으로 전하는 해설을 통해 인문학과 예술이 접목된 색다른 강의를 만날 수 있다. 매 기수별로 다섯 번의 강좌가 펼쳐지며 마지막 강좌는 공연관람으로 진행된다.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일 시 | 6월 3일(토)~11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4층 강의실
 입장료 | 무료(초등 고학년·중학생선착순 30명 이내)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클래식라디오 010-3881-3753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하는 2023년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이번 프로그램은 현악기로 떠나는 음악여행(1기, 6월 3일~24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재즈 이야기(2기, 7월 1일~22일), 부는 재미 듣는 기쁨 관공악기(3기, 8월 19일~9월 9일), 신명나는 국악 이야기(4기, 9월 16일~10월 14일), 둠치둠치 타악 이야기(5기, 10월 21일~11월 11일) 등 다섯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음악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고 음악의 구조와 요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7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3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3일(월)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행복한 시지프스의 아모르 파티(Amor Fati)'

·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0일(월) 문예 비평의 방법들

· 강사/전성욱(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13일(목) 낭독과 낭송 그리고 시조창(時調唱)과 詩수다. 재스민 향기는 어두운 두 개의 콧구멍을 지나서 탄생했다(조말선 著, 2012)

17일(월) 끊임없이 모험하는 로빈슨 크루소와 영국사회

· 강사/조윤술(인문학자)

24일(월)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데카르트와 톨스토이의 만남'

· 강사/김영진(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교수)

31일(월) 아나모르포시스(Anamorphosis)로 본 시적 세계

· 강사/김남영(문학평론가)

7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7월 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슈베르트 특집, 금요일에는 낭만주의 오페라,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팔리아치(7일~8일), 푸치니 '제비&자니스키키'(14일~15일), 슈베르트 '피에라브라사'(21일~22일),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28일~29일)

콘서트(슈베르트 특집)/슈베르트 다큐(4일, 8일), 교향곡 제5번, 제8번, 소품(11일, 15일), 교향곡 제9번, 관현악(18일, 22일), 가곡, 실내악(25일, 29일)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무지크바움 음악홀
 입장료 | 월 4회 5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전문감상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음반 및 영상물 4,000장이 상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 음악감상 홀이자 다양한 예술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매주 수요일 두차례, 르네상스 및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명반을 소개하고, 다양한 콘서트 실황 및 음악 페스티벌, 오페라, 재즈 및 월드뮤직, 예술영화 등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김옥균의 클래식뮤직감상이가 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강좌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14일 가곡발표회)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특강(3), 낭만파 음악의 이해&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생상스 '첼로협주곡'
부산시립합창단 OB팀 초청 가곡발표회(출연/소프라노 박현정, 최명희, 테너 김천중, 성상철, 바

리톤 한성권, 배용 외)
클래식음악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
아일랜드 음악기행_대니보이, 켈틱우먼-라이브 콘서트 실황'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
월드뮤직 스페셜_그리스인 조르바 O.S.T,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제18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낭송음악화

일 시 |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꽃마을 카페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출연/박정애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음악가/송진영(가수), 고종진(클래식기타리스트)

무지크바움 성악/노래 클래스

일 시 | 7월 13일(목), 27일(목) 오후 2: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월 2회 5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마련하는 성악/노래 클래스.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테너 김준태가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레슨 형식의 수업을 통해 한국가곡 및 영미가곡, 이탈리아가곡, 독일가곡, 세계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가곡을 배워볼 수 있다.

특히 발성연습을 시작으로 딕션-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배우기, 노래부르기 등 단계별 학습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다.

특히 발성연습을 시작으로 딕션-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배우기, 노래부르기 등 단계별 학습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다.

2023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음악 광장에서 만나다

일 시 | 7월 26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
입장료 | 무료
문의 | 상지건축 대외협력본부 240-1526, 1529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천재라는 분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 그 음악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며 각각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본성이 만날 때 시대를 읽어내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길이다.

이런 강좌는 음악이라는 소재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이런 강좌는 음악이라는 소재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3 슬픈 나의 젊은 날

일 시 | 3월 10일(금)-8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의 실험 정신과 독창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3'. 김덕희, 오민욱, 조정환 등 작가 3인의 회화, 미디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작을 포함한 70 여점을 소개한다.

Sacred Land

일 시 | 4월 13일(목)-10월 15일(일)
사진미술관
문의 |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747-1939

부산박물관 2023년 특별기획전 조선의 외교관, 역관

일 시 | 5월 12일(금)-7월 9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일 시 | 5월 27일(토)-9월 3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입장료 | 1만5천원
문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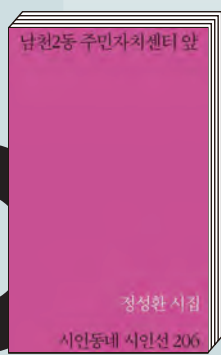
일 시 | 6월 16일(금)-8월 2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잃어버린 콩나물을 찾아서

김창욱 지음 / 해피북미디어 / 1만8천원

부산의 음악평론가 김창욱의 음악비평 에세이. <부산음악의 지평>, <나는 이렇게 들었다>, <청중의 발견>, <홍난파 음악연구> 등의 저서를 냈다. 이번에 낸 <잃어버린 콩나물을 찾아서>에서는 음악가들의 삶과 일화, 노래와 음악문화에 대한 단상을 들려준다.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며 독자를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책이다. '잃어버린 콩나물' 일화는 이렇다. 공연 전 악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음악단장이 급하게 악보를 찾아 해맨다. 구원처럼 만난 청소 아줌마에게 다급하게 악보의 행방을 물었더니 "콩나물 그림 말야고?" 하고 답한다. 주섬주섬 꺼내 든 악보 봉치를 낚아채 부리나케 뛰어가는 단장의 어깨너머로 청소 아줌마가 외친다. "국도 못 끊이는 콩나물 대가리가 뭐 그리 대수라고!" 저자는 유쾌한 문장 속에 음악가의 고달픈 현실과 음악에의 사랑을 담는다. 콩나물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성악가의 실수에 관객이 외친 한마디, 아버지 합창단의 일화 등 무대 위와 아래에서 음악가들이 겪은 에피소드가 흥미롭게 이어진다. 무대 밑의 애달픈 일상과 무대 위의 박수갈채 사이에서 클래식 음악 종사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음악과 음악의 길이 펼쳐진다.



남천2동 주민자치센터 앞

정성한 시집 / 시인동네 / 1만원

2017년 '시문학'으로 등단한 정성한 시인의 신작 시집. 첫 시집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말'에 이은 이번 두 번째 시집은 제목이 정겹다. '남천2동 주민자치센터 앞'이다. 친구와 만날 약속 장소를 적어둔 메모를 보는 기분이다. 잘 알고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시집 제목으로 등장하니 반갑다. 시 '남천2동 주민자치센터 앞'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 마음처럼 너무도 걸어서 천릿길 갑니다/ 서귀포 표선면 녹산로 눈부신 빛나무도/ 춘삼월에 닳새를 걸어/ 부산 남천2동 주민자치센터 앞까지 오는 걸 봅니다" 매년 벚꽃이 필 때면 장관을 이루던 풍경이 떠오른다. 정성한 시인은 시 아래에 주를 달아 남천2동 주민자치센터 앞 빛나무 다섯 그루가 부산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한 시인은 "기상청은 기준목의 한 가지에 세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개화로 본다. 공식적으로 부산의 벚꽃 시작을 알리는 셈이니, 대대적인 부산의 봄 시작을 인정받는 곳이라고 우길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을 거의 매일 새벽에 지나간다. 광안리 해변길을 운동 삼아 걸으며 아침을 맞아 온 것이 시인의 일상이었다. 벚꽃이 부산에 도착해 꽃을 피우는 순간을 놓칠 리 없었다.



내가 토슈즈를 신은 이유

미스티 코플랜드 지음, 이현숙 옮김
동글디자인 / 2만1천원

미국 최고 발레단 ABT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가 된 미스티 코플랜드의 회고록. 이 책은 미스티 코플랜드가 발레를 처음 배운 순간부터 수석 무용수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발레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발레를 통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법을 들려준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발레와 상관없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발레리나는 무대 위를 가득 채우는 군무 무용수인 코르 드 발레, 독무를 출 수 있는 솔리스트, 발레단에서 제일 높은 위치의 발레리나로서 주역을 맡는 수석 무용수로 나뉜다. 1940년에 설립된 ABT에서는 단 한 번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수석 무용수로 승급한 적이 없었다. 2015년, 미스티 코플랜드는 ABT의 75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가 됐다. 레이본 윌킨슨, 애샤 애쉬, 알리시아 그라프 맥 등 피부색으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겪어야 했던 많은 흑인 발레리나들이 있었다. 미스티 코플랜드는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흑인 발레리나가 되어 발레계에 새 역사를 썼다. 한 발레리나의 열정과 그의 삶이 뜨겁게 다가와서 읽는 사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노래하다’ 시즌2 연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진행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노래하다’ 시즌2 추가공연이 6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초등학교 10 개교에서 열린다.

지난해 2030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엑스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시작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노래하다’는 참여 학교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 3월 22일부터 6개 학교에서 시즌2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1,300여 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엑스포 개최국에서 소개된 제품으로 구성된 동요메들리, 부산찬가 등 노래를 들으며 엑스포가 무엇인지, 엑스포 유치의 의미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시즌2의 성공적인 개최로 입소문이 나면서 학교의 공연 연장 요청이 이어지자 시즌2의 추가공연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가공연은 5월 31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신청접수가 1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즌2 추가 공연은 지난 6월 7일 온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학기인 7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7개 학교에서, 2학기에는 9월 6일부터 20일까지 3개 학교에서 열리며,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공연과 더불어 부기와 함께하는 엑스포 퀴즈 등이 진행된다.

일정

- 6월 28일(수) 송수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7월 5일(수) 용호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7월 12일(수) 연포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7월 19일(수) 백산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9월 6일(수) 수미초등학교_부산시립합창단
- 9월 13일(수) 괴정초등학교_부산시립합창단
- 9월 20일(수) 안남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문화사절단으로
해외무대 서는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해외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무용단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7월,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공화국을 찾는다. 7월 18일, 파나마공화국의 수도이자 중남미의 무역과 금융의 허브도시인 파나마시티 아나얀시(Anayansi)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처용무, 태평무, 동래학춤, 고혹, 춘설, 진도복춤, 사랑가, 풍류장고, 운무 등 우리의 멋과 흥이 넘치는 전통무용 공연을 펼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무용제 중 하나인 중국 신강 국제무용제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중국 신강 국제무용제는 20개국 12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무용단은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중국 신강인민예술극장에서 두차례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처용무, 태평무, 동래학춤 등 우리 전통무용과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호평을 받았던 창작무 '남풍의 시나위, '소생'의 비나리, '부산, 40계단'을 새롭게 창작한 'Rgen 소생'을 선보인다.

부산시립합창단은 8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친다. 특히 LA는 지난 1967년부터 부산의 자매도시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LA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마스터 코랄(LAMC)과의 협업으로 도시간 문화 가교 역할에도 힘을 예정이다.

2023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 **응시 자격** : 노래에 소질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부산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2023년 6월 학기 기준)
- **모집 인원** : 00명
- **전형 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6. 22.(목) ~ 7. 4.(화) (14:00 마감)	실기 및 면접전형	7. 6.(목) 17:00 ~ ※ 16시30분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부산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7. 11.(화) 17:00(예정)

※ 서류접수 마감은 2023. 7. 4.(화) 13:00까지이며, 이후 시간에는 접수되지 않음

※ 응시순서 추첨 시작 후 입실 시 응시 불가

- **응시원서 접수방법**: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E-mail(thjjang77@bscc.or.kr) 접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새소식/채용 참고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담당자 607-3131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 마감은 공연 1일 전 14:00 • 취소 마감은 공연 1일 전 17:00
공연 1일 전 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3.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3. 6. 28.(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연주 |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
• 지휘 | 김현국 • 피아노 | 황성훈
• 첼로 | 양옥진 • 오보에 | 권성은



소프라노와 12명의 첼리스트가 빚어내는 천상의 하모니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문화 | 대극장 2023. 7. 4.(화) 7:30pm
VIP 160,000원 R 120,000원 S 8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출연 | 소프라노 조수미,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오페라 <카르멘>

문화 | 중극장 2023. 7. 13.(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제주시아트센터-제주4·3평화재단 공동기획 및 제작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문화 | 대극장 2023. 8. 19.(토) 3:00pm
무료 ※티켓오픈 추후공지,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총감독, 연출 | 강혜령
• 원작 | 현기영
• 대본 | 김수열
• 작곡 | 최정훈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극단가람, 밀물현대무용단, 순이삼촌오페라합창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KBS 성우 짱구엄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문화 | 중극장 2023. 8. 20.(일) 11:00am, 3:00pm
R 40,000원 S 20,000원 ※만 5세 이상 관람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문화 | 대극장 2023. 8. 26.(토)-27.(일)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곡 | G.푸치니 • 연출 | 정선영
• 지휘 | 김현수
• 합창·연주 | 2023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문화 | 중극장 2023. 8. 31.(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하루!
뮤지컬 <이상한 엄마>

문화 | 중극장 2023. 9. 9.(토)-10.(일)
11:00am, 2:00pm, 4:00pm
R 60,000원 S 40,000원
※12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원작 | 백하나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세기의 오페라 대결이 시작된다!
뮤지컬 <파리벨리>

문화 | 대극장 2023. 9. 23.(토)-24.(일)
※중학생 이상 관람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뮤지컬 <마리 퀴리>

문화 | 대극장 2023. 10. 14.(토)-15.(일)
VIP 99,000원 R 88,000원 S 66,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 프로듀서 | 강병원 • 극작 | 천세은
• 작곡 | 최중윤 • 연출 | 김태형
• 안무 | 신선호
• 음악감독 | 신은경
• 제작 | 라이브(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등백꽃 질 무렵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2023. 10. 19.(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을 통한 추억 여행
<모던 애프터눈>

문화 | 챔버홀 2023. 10. 21.(토) 5:00pm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출연 | 김소영, 박강현, 이호찬, 오신영



부산 지역 예술단체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중극장 2023. 11. 2.(목), 5.(일), 9.(목)



NHK 다큐멘터리 '대항하'의 주인공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1. 9.(목) 7:30pm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2023 대학 교향악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18.(토)-26.(일)
평일 7:30pm, 주말 3:00pm
전석 10,000원 ※티켓오픈 추후공지
• 11.18.(토) 3:00pm | 경성대학교
• 11.19.(일) 3:00pm | 동의대학교
• 11.24.(금) 7:30pm | 인제대학교
• 11.25.(토) 3:00pm | 동아대학교
• 11.26.(일) 3:00pm | 부산대학교



공개 오디션을 통한 청년 희망 날개 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문화 | 대극장 2023. 12. 2.(토) 5:00pm
전석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출연 | 청년 성악가(공모) 및 부산성악가협회원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뮤지컬 <렛미플라이>

문화 | 중극장 2023. 12. 15.(금)-16.(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60,000원 S 5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 | 조민형 • 작곡 | 민찬홍
• 연출 | 이대웅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
시나위의 감성으로 풀어낸 명작의 연극미학
<벚꽃동산>

문화 | 중극장 2023. 12. 22.(금)-23.(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30,000원 S 2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작 | 안톤 체홉 • 연출 | 이기호
• 기획 | 극연구집단 시나위
• 출연 | 박상규, 우명희, 박창화 외 11명



부산시민회관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뽀를 찾아라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핑크퐁, 아기사어, 대니 구, 펙킨코러스, 바삐르 오케스트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초등학교 이상 관람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콘텐츠 상영프로젝트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3. 6. 28.(수), 8. 30.(수),
10. 25.(수), 11. 29.(수) 매주 수요일 7:00pm
무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페스티벌!
부산버스킹페스타

시민 | 소극장 2023. 7. 1.(토) 3:00pm
전석 20,000원
• 출연 | 2023년 버스킹 예선 통과팀(10개팀)
• 예술감독 | 김종근
• 협력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30부산월드엑스포부산유치위원회
• 게스트 | 딕펄스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민 | 대극장 2023. 7. 5.(수)-16.(일)
수-목요일 10:30am, 금요일 7:30pm,
토요일 11:00am, 2:00pm, 일요일 11:00am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5일 10:20am, 12일 2:00pm(월-화 공연없음)
※48개월 이상 관람
• 작 | 김정민 • 음악감독 | 성찬경
• 연출 | 이대웅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시민 | 소극장 2023. 7. 7.(금) ~ 8.(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 작가 | 레지널드 로즈(Reginald Rose) • 연출 | 류주연
• 번역 | 김용준
• 출연 | 이현경, 오재균, 민병욱, 최명경, 이재인, 방기범, 김애진, 반인환, 홍성호,
김용식, 김서아, 황비홍, 허준호
• 후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어른들을 위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연극 <검정 고무신>

시민 | 소극장 2023. 7. 22.(토) 3:00pm
전석 20,000원 ※8세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예저또
• 작 | 김지연 • 연출 | 최재민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3 시민뜨락축제

장소 미정 2023. 8. 19.(토)-9. 2.(토)
매주 토요일 12:20pm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무료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3. 8. 26.(토)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디토 오케스트라, 디즈니 싱어즈(신재범, 김환희, 이종석, 홍경아 외)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시민 | 대극장 2023. 9. 1.(금)-2.(토)
평일 7:00pm, 주말 3:00pm
R 8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8세 이상 관람
• 출연 | 이은미&민경인트리오, 말로, 시호&시게키, 최은아, 워나&조운성트리오,
이효정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부산에서 만나다!
발레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3. 9. 16.(토)-17.(일)
토요일 5:00pm, 일요일 2:00pm
VIP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음악 | 루트비히 민쿠스 • 원안무 | 마리우스 피티파
• 재안무 | 송정민 • 각색 | 정다영
• 작, 편곡 | 김인규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주)화승



관객이 뽑은 '국립극단에서 보고 싶은 연극 1위'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시민 | 대극장 2023. 11. 3.(금)-4.(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50,000원 S 3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원작 | 기군상 • 각색, 연출 | 고선웅



동화구연을 활용한 우화와 무용의 만남!
무용 <여우와 돌고래>

시민 | 소극장 2023. 11. 18.(토) 3:00pm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안무 | 임진호, 이경구 • 드라마트루그 | 지경민
• 제작 | 고블린파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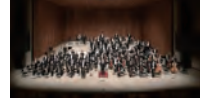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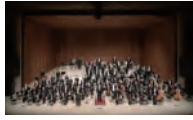
• 지휘 김덕기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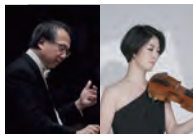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사오치야 류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III

문화 | 챔버홀 2023. 12. 1.(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1:0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현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멘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Muy bien, 열씨구 좋다!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챔버홀 2023. 6.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문화 | 대극장 7월 27일(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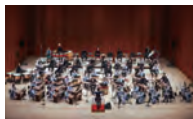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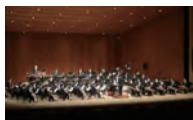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2023. 10. 12.(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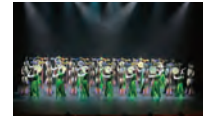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22.(토) 5: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 -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배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 : 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5. 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3. 6. 14.(수)-17.(토)
수·목요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금요일 10:00am, 2:00pm(단체관람),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

스타프로젝트 2023-극작가 김문홍전

-안개주의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사자의 편지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시간미정
• 연출 미정



제76회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전석 5,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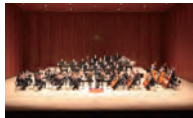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제71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9. 5.(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0. 31.(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11. 11.(토) 7:30pm
전석 2,000원



제72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2. 26.(화) 7:30pm
전석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문화 | 챔버홀 2023. 5. 27.(토) 5:00pm
무료



제16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종료**

6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7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40매)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종료**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 5일 오전 10:20, 12일 오후 2:00(월-화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금·일요일 공연에 한해 회차별 R석 20매)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종료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종료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종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5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5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부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조홍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김영광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권홍사 (주)반도건설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엘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주)미성하이텍

임말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전)국회의장

정민섭

속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조종래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한원우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Best Western PLUS
Busan Songdo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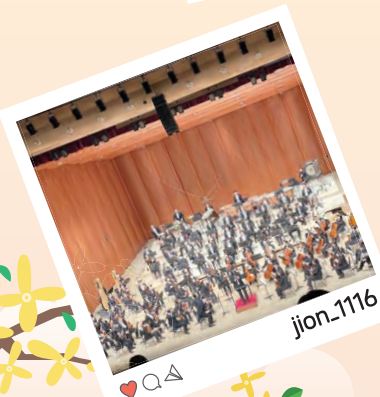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7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7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7.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EXPO 2030
BUSAN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연장



2023. 6. 9(금) - 7. 23(일)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제작 극단 오오씨어터 입장료 전석 2만원 입장연령 36개월 이상 문의 및 예매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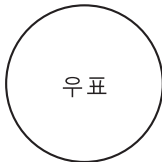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7 JULY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THE MUSICAL
데스노트

2023.07.26 ~ 08.06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홍광호 김준수 고은성 김성철 이영미 장은아 서경수 장지후 류인아 장민제 김용수 서범석 박현선 외

제작 OD COMPANY 주최 부산광역시 TBC TJB 주관 bJ

Music by FRANK WILDHORN Lyrics by JACK MURPHY Book by IVAN MENCHELL Arrangements & Orchestrations by JASON HOWLAND Original Direction by TAMIYA KURIYAMA
Produced by CHUNSOO SHIN

©Tsumumi Ohba, Takeshi Obata / Shueisha Original Production by Horipro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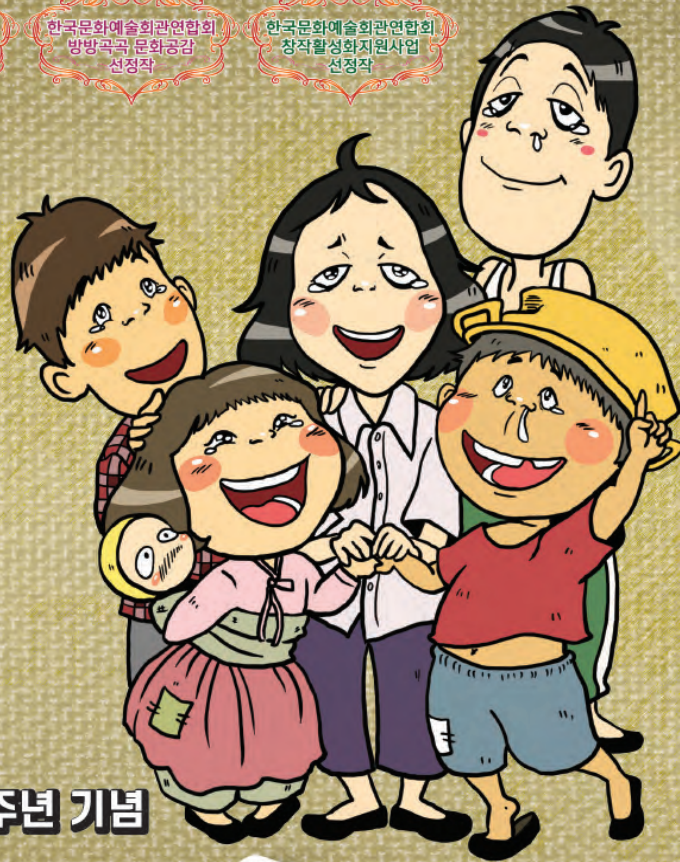
아르코와 함께하는
청소년 관객개발 선정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우수재공연 선정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활성화지원사업
선정작

어렵지만
정이 있었고,
나눔과
서로의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시절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검정인무신

검정인무신
Since 2007

2023. 7. 22^{SAT}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Disney IN CONCERT BEYOND THE MA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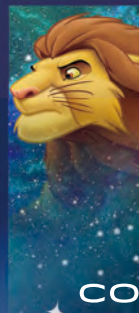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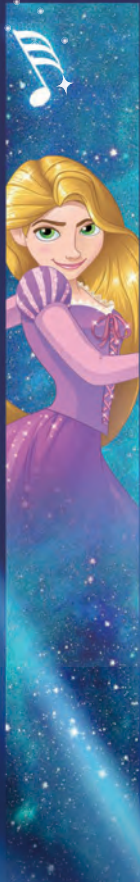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디즈니 인 콘서트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8. 26. (토) 3:00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 기원

2023 부산오페라시즌



G. PUCCINI

OPERA TOSCA

오페라 <토스카>

2023. 8. 26. (토) ~ 27. (일)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연출 | 정진영 지휘 | 김현수 출연 | 서선영, 정혜민, 신상근, 허동권, 안세범, 박정민, 김정대, 박상진, 안형일, 정다훈, 최모세, 황동남
합창 연주 | 2023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음악코치 | 이소영 문의 및 예매 | www.bscc.or.kr 051-607-6000(ARS 1번)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협력제작 | Daegu Opera house
051-269-9112

MAKE BELIEVE

에릭요한슨展

상상을 찍는 작가

2023. 6. 27. - 10. 8.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매주 월요일 휴관

ERIK JOHANSSON